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朴 賢 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승

-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成均館大學校 文化融合大學院

文化融合 學科

趙 素 賢

碩士學位請求論文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승

2  
0  
1  
9

趙  
素  
賢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朴 賢 純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승

-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  
The Inscription of ‘Culture of Jeju Haenyeo’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Influence on Transmission

成均館大學校 文化融合大學院

文化融合 學科

趙 素 賢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朴 賢 純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승

-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관련한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  
The Inscription of ‘Culture of Jeju Haenyeo’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Influence on Transmission

이 論文을 文化融合學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9 年 4 月 日

成均館大學校 文化融合大學院  
文化融合 學科  
趙 素 賢

이 論文을 趙素賢의 文化融合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19 年 6 月 日

審査委員長

---

審査委員

---

審査委員

---

## 목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5
 <b>제2장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b> .....	8
제1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제도 .....	8
1.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내용 .....	9
2.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 및 등재 기준 .....	13
제2절 한국의 문화유산보호제도 .....	16
1. 문화재보호법 .....	17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19
3. 시도 자치법규 .....	22
 <b>제3장 제주해녀문화의 특징과 등재</b> .....	24
제1절 제주해녀의 역사 .....	29
제2절 제주해녀문화 속 유·무형문화유산 .....	35
1.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서의 해녀문화 .....	35
2. 시·도 지정 문화재로서의 해녀문화 .....	38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 속 해녀문화 .....	40
제3절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	46

<b>제4장 연구문제 및 방법</b>	50
제1절 연구문제	51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52
1. 연구 대상	52
2. 연구 방법	53
제3절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55
1. 연구 참여자	55
2. 연구 자료의 수집	57
 <b>제5장 유네스코 등재가 유산의 전승에 미친 영향</b>	 58
제1절 이차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 결과	58
1. 제주해녀문화 관련 정책 변화	58
2. 제주해녀 복지 및 지원 사업	65
3. 제주해녀 교육 및 전승 프로그램	68
4. 제주해녀 홍보 및 콘텐츠 활용	77
제2절 인터뷰 결과	82
 <b>제6장 제주해녀문화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방안</b>	 99
제1절 제주해녀문화 전승의 문제점	99
제2절 제주해녀문화 전승 방안	102
1. 국외 무형문화유산보호 모범사례	102
2.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제도 개선	108
 <b>제7장 결론</b>	 112



참고문헌 .....	116
ABSTRACT .....	125

## 표목차

<표 1>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준 .....	14
<표 2>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	15
<표 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의 비교 .....	21
<표 4>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와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비교 .....	25
<표 5> 제주해녀문화 관련 연표 정리 .....	27
<표 6> 인터뷰 대상자 .....	55
<표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관련 조례 현황 .....	59
<표 8>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을 위한 지원금 .....	60
<표 9> 한수폴 해녀학교 교육 과정 비교 .....	71
<표 10> 법환해녀학교 모집 관련 사항 .....	72
<표 11>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 .....	74
<표 1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대상별 월 지급금액 .....	108
<표 13> 제주도 현직해녀 현황 (2018년 기준, 2017년 말 추정) .....	109

## 그림목차

<그림 1>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소개된 불턱의 모습 .....	41
<그림 2> 해녀박물관 근처의 ‘모진다리 불턱’의 모습 .....	42

## 논문 요약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전승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지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보유한 국가는 유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형유산의 보호란 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뜻하는데, 정책의 신설 및 강화, 전승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및 복지,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의 전승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적 보호조치 이행 상황에서 제정된 여러 정책들이 실제 전승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등재를 기점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생명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5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를 ‘해녀’로 지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등재 후속 관리 및 해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녀문화유산과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가 신설되었고,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 제도 또한 마련되었다.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여러 민간단체들이 해녀문화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는 복권기금으로 충당되

고 있는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문화생활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해녀굿 지원 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및 소라가격보전을 통한 월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이처럼 해녀들의 삶을 지원하고, 해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전승자의 수는 유산의 생명력과 직결되고, 유산의 유지는 물론 유산을 강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고령화 및 산업구조변동으로 인하여 해녀의 수가 감소하면서 해녀문화 또한 영향을 받고 있어, 유산을 전승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해녀학교가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신규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해녀학교를 졸업하고도 어촌계의 높은 가입 문턱과 물질 경험 부족으로 인한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마을에 정착하는 신규 해녀의 수는 해마다 은퇴하는 해녀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정 수의 해녀를 유지하기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규해녀정착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해녀를 독려하고 있으나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따라서 현직 해녀가 직접 참여하고, 현장 특화적인 해녀문화 전승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 제주해녀문화는 유산 등재 이후에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국내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마저도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는 종목의 전승지원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여 해녀들은 전승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 차원에서의 전승활성화 방안 및 전승지원제도가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현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분된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수가 적고, 하나의 사례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주제어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무형문화재, 전승, 해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주해녀문화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는 2016년 11월,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된 대한민국의 열아홉 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본 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자연친화적 방법을 사용하여 생태 환경을 유지하며,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제주해녀문화를 포함시켰다. 제주해녀문화는 바다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형태로 등재된 첫 사례로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유산이고<sup>1)</sup>,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했다. 이를 통해 해녀공동체와 유사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와의 문화 간 대화를 고취시킬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다.<sup>2)</sup>

제주해녀문화는 해녀의 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유·무형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과 굿을 행하던 공간인 ‘해신당’,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던 ‘해녀노래’, 어머니에게서 딸·며느리에게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sup>3)</sup>

1)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리스트에 ‘Marine Life’로 검색하면 1건, ‘Women Workers’로 검색하면 총 11건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Women Workers(여성 근로자)에 관한 유산이 11건, Marine Life(바다)에 대한 유산이 1건이고, 제주해녀문화가 여성이 중심이 된 바다 기술과 지식에 대한 첫 사례라는 것을 보여준다.

1. 카테고리 ‘Marine Life’ : <https://ich.unesco.org/en/search-00795?q=Marine+Life>

2. 카테고리 ‘Women Workers’ : [https://ich.unesco.org/en/lists?term\[\]=vocabulary\\_thesaurus-3182](https://ich.unesco.org/en/lists?term[]=vocabulary_thesaurus-3182)

2) “Decision of the Committee: 11.COM 10.B.24”  
<https://ich.unesco.org/en/decisions/11.COM/10.B.24>

3) 고은솔, 정상철 (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술경영연구, 45, p.318

제주해녀문화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다. 제주의 해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에서 나잠어 법으로 물질을 하며 제주해녀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으며, 해녀의 끈질긴 생명력과 개척 정신은 지역민들에게도 든든한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

이렇듯 제주해녀문화는 해녀들에 의해 해녀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해녀의 사냥 및 채집 기술, 즉 어로 기술과 잠수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된 훈련을 거쳐 물질 경험을 쌓으면서 체득되는 것이다.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을 취하던 ‘불턱’은 초심자들이 상군 해녀<sup>4)</sup>들의 물질 경험을 들으며 관련 지식을 쌓고, 기술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며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해녀문화 전승의 현장이다. 이와 더불어 2006년 개관한 해녀박물관과 2008년에 개교한 해녀 학교<sup>5)</sup> 또한 해녀 문화의 지속적인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민속 지식과 물질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에 종사하는 제주해녀문화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는 유네스코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 2015년에는 국가 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제주해녀어업<sup>6)</sup>이 지정되었고, 이어 2017년에는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sup>7)</sup>로 지정된 바 있다.<sup>8)</sup> 이

4) 해녀는 크게 ‘상군, 중군, 하군’ 세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흔히 ‘해녀왕’이라고 불리는 해녀들은 ‘상군’이며, 이 세 그룹의 경계는 매우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와 별개로, 막 물질작업을 시작한 초심자들을 이르러 ‘똥군’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5)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녀학교는 총 두 곳이 있는데, 제주시 한림읍의 ‘한수폴 해녀학교’가 200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이어 2015년에 서귀포시 법환 어촌계에 ‘법환해녀학교’가 개교하였다. 한수폴 해녀학교는 전승교육보다는 관광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세워진 세계최초의 해녀학교이며, 법환 해녀학교는 신규해녀양성을 위해 세워진 학교라고 할 수 있다.

6) ‘국가중요어업유산’

<http://www.xn--o39a10ay63bzwepcu5dc2ar7i.kr/kifhs/0001/0003;jsessionid=5878F1A4B9963BE40294F25F95DF2C98/>

7)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ZZ0132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ZZ01320000)

8)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된 해녀는 제주해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잠어업을 하는 모든 해녀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유산’과는 지리적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제주의 해녀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렇듯 제주해녀문화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제주해녀문화 전승의 주요 주체인 해녀의 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sup>9)</sup> 해녀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은 바로 산업구조의 변동과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해녀라는 직업은 제주 여성들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다음 세대로의 이전이 자연스러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제주 여성들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녀라는 직업은 제주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숙명에서 선택 가능한 직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젊은 해녀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다. 새로 유입되는 해녀의 수가 줄자 기존 해녀들로 구성된 해녀 공동체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전승자 감소의 문제가 대두되었다.<sup>10)</sup>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무형문화유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화의 전승 공동체가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는 전승자의 수가 유산의 생명력을 유지 및 지속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전승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으며, 특히 해녀문화 전승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전부터 의료비, 잠수옷 등 지원 및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 해녀(해녀문화)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sup>11)</sup> 유네스코 등재 이후 신설된 해녀문화유산과<sup>12)</sup>를 중심으로 제2차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2017년~2021년) 계획이 시행 중에 있으며, 무형문화재로서 제주해녀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할 수 있는 국내법적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으로서의 등재가 불러온 일종의 나비효과인 셈이다.

9) 고창훈 (2005).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계승. 한국토목학회 학술대회, 3276-3286.

10) 1970년대 1만 4000명에 달하던 해녀의 수는 현재 3000여명 만이 남아있으며, 현역 해녀의 약 60%가 70세 이상의 해녀로 구성되어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108/92795915/1>

11) 제주해녀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원 초창기인 2006년의 정책은 무형문화로서의 '해녀'를 보호하고 전승한다기보다, 어업인/노동력에서 접근했다고 하는 것이 적합한 듯 보인다.

12)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분과 '해녀문화유산과'에 대한 설명  
<https://www.jeu.go.kr/join/evaluation/part9/08.htm?act=index&category=2193>

본 논문의 목적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무형유산의 전승에 미치는 영향을 유네스코 등재 유산인 제주해녀문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해녀문화는 특히 전승에 참여하는 특수 집단이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생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산들과 비교된다.<sup>13)</sup>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2년여가 지난 2019년 5월 현재까지 좌혜경, 김영돈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녀 노래, 제주해녀의 역사, 제주해녀가 당면한 문제점, 문화 콘텐츠 활용 측면에서의 연구 등을 선행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의 ‘등재’를 위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등재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주체인 제주해녀를 분석하고, 등재 이후 국내적 변화 양상(정책 신설, 해녀양성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는 한편, 해녀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전승 공동체가 체감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들을 취합하고자 한다.

제주해녀문화를 전승하는 제주해녀 공동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이기도 하다. 무형유산의 전승 문제는 제주해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가 당면한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승 공동체와 전승자가 확실한 유산 분야 전승 진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이다.

13)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다른 유산들과 비교할 때, ‘아리랑(2012년 등재)’이나 ‘김장문화(2013년 등재)’의 경우, 전국민에 의해 전승될 수 있는 유산으로서, 유네스코 등재의 전승 강화에 대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고, ‘농악(2014년 등재)’의 경우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영산재(2009년 등재)’나 ‘가곡(2010년 등재)’는 확실하게 분별되는 전승공동체가 있긴 하지만 고전 예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승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생업, 경제력) 제주해녀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등재 이전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2016년 신법 발효 이전 기준)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으므로, 열아홉 건의 유산 중 제주해녀문화를 연구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 제2절 연구 목적

제주해녀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70년대에 강대원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의 연구는 제주해녀를 향토 민속학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후 해녀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국문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며 황금기를 맞았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국문학적 입장에서 해녀 현장 연구를 위해 해녀노래를 분석한 김영돈의 연구와 좌혜경의 일본 아마와의 비교 연구를 꼽을 수 있다.<sup>14)</sup>

2000년대 초반, 해녀가 외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전후하여 일치한다. 이 시기에 일본의 NHK 방송과 미국의 National Geography<sup>15)</sup>는 해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에 맞춰 해녀 축제가 첫선을 보인 바 있다.<sup>16)</sup> 이 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등 서구 언론들에 의해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학자들과 언론인들에게 주목받던 제주해녀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고, 한국 또한 2005년 2월 본 협약에 가입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2000년대 중반,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해녀의 역사나 민요 등의 분석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와 달리,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의 등재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줄고 있는 해녀 인구수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주해녀 또한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해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

14) 좌혜경 (2002).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36, 229-270

15) 고창훈(2005)의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방송국이 1998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영상이나 기사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에 ‘National Geography documentary on Cheju haenyeo’ 라고 검색하면, 2001년 방영된 제주해녀관련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rYDk5mcN4&t=35s>

16) 고창훈 (2005)의 글. p. 3285

치도는 2006년,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통해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2007년, 한수풀 해녀학교와 2008년, 해녀 박물관이 차례로 개관하면서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었다. 이어 2009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주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전문 어업인에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현재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제주해녀문화는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무형협약과 국내법의 괴리로 인한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마침내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고, 무형문화재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년 11월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면서, 해당 유산은 전통지식/생산지식 범주에 해당하는 보유자 없는 단체 종목으로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에 해녀가 지정 및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무형문화재, 특히 제주해녀문화는 연구와 정책 그리고 전승 측면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속학이나 문명사적 가치에 집중되어있던 연구 분야가 확장되었고, 경제적·의료적 지원 및 복지에 국한되어 있던 정책분야 또한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제주해녀문화는 국제법에 맞춰 개정 및 확대된 국내법 범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속해서 관리 및 보존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가 국내의 무형문화재 또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등재 이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유산의 전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1.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현 세대에

서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와 국내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란 어떤 의미인지, 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2. 제주해녀의 역사와 유산의 특징, 유네스코 등재 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3.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이뤄진 다방면에서의 변화를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현황에 대해 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유산 등재 이후 보호와 전승의 측면에서 관련 정책의 명시적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전승 현장에서의 적용과 효과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분된다.

## 제2장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

먼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국내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국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제도가 있고, 국내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와 각 시도 차원의 자치법규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의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영향을 주고 있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를 살펴본 뒤,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법률을 통해 국내의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유산 보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제1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수많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문화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유네스코는 조직 창립 초기부터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여러 협약과 권고, 선언,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sup>17)</sup>

유네스코의 여러 협약 및 사업 중, 1972년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 1992년의 세계기록유산사업 그리고 2003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하, 무형유산협약 또는 2003년 협약)은 등재 제도를 통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전승하고 있다. 한국은 종묘(1995년 등재)와 창덕궁(1997년 등

17)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및 사업으로는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1954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년), ‘세계기록유산 사업’(1992년),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2001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이 있다.

제)를 비롯한 13점의 세계유산과 아리랑(2012년 등재), 제주해녀문화(2016년 등재)를 비롯한 19건의 무형유산, 훈민정음(1997년 등재)와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년 등재) 등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sup>18)</sup> 현재 한국은 세 유산 제도 전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sup>19)</sup>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제주해녀문화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이다.

## 1.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내용

2003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9개의 장으로 나뉘는 4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0)</sup> 협약 제1장 제1조에서는 협약의 목적을 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②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 ③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④ 국제적 협력 및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1)</sup>

2003년 협약에서는 제2조 1항과 2항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제2조 정의

#### 1.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18)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목록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heritage.unesco.or.kr/>

19) 김지현 (2017),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사업의 현황 -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회, p. 153-178

20)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국문 전문은  
[http://heritage.unesco.or.kr/wp-content/themes/unesco\\_heritage/file/무형문화유산협약\\_한글.pdf](http://heritage.unesco.or.kr/wp-content/themes/unesco_heritage/file/무형문화유산협약_한글.pdf)

21) 협약 제1장 제1조. 협약의 목적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 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2. 위 제 1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명시된다.

-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나) 공연 예술
-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마) 전통 공예 기술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세대 간에 전승되며,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창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다. 때문에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처럼 고정된 과거의 유산과는 다르게 해당 문화를 끊임없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계승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여타의 협약들과 비교할 때 2003년 무형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은 해당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이와 동시에 본 협약은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과정 전반에 있어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개인(보유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유산의 가치가 공동체에 의해서 정의되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 전승 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sup>22)</sup>

본 협약에서 목적만큼이나 중요성을 갖는 것은 바로 보호(보전, Safeguarding)<sup>23)</sup>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 2003년 협약의 핵심은 유산의 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협약 도입부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 유형문화 및 자연유산과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수단이기,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화 및 사회 변화의 과정이 공동체간 새로운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무형유산이 쇠퇴와 소멸, 파괴의 위협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였고, 미래 세대에게 무형유산과 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본 협약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이든 긴급보호목록에 오른 유산이든 관계없이 현대의 무형유산은 언제든지 소멸되거나 파괴될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sup>25)</sup> 보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 협약의 제2조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Kim (2016). 위의 논문. p. 43

23)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保護)’는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보전(保全)’의 경우,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원래대로 보존’한다는 뜻은 무형문화재 신법 제정 이전 ‘원형보존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하는 유형유산적 보존에 더 맞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무형유산의 ‘Safeguarding’을 ‘보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1. ‘보호(保護)’,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812d4905ffd45ec830a7e30d94ce0eb>

2. ‘보전(保全)’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33925ec718b4010908bbfdd413f780f>

24) 2003년 협약의 도입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5) 세계유산 제도 또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창덕궁이나 종묘 등과 같은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세계유산 논의의 시작은 이집트의 아스완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처한 누비아 유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형과 무형 유산의 보호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스완 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사원 중 하나였던 ‘데보드 신전’은 현재 스페인의 마드리드 한 가운데에 자리해 있는데, 이는 이집트가 유산의 보호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준 스페인에게 기증한 것이다. 한 때 사라질 위협에 처했지만, 유형 유산의 경우 바로 이러한 것처럼, 위치를 바꾸는 것 등의 방법을 통해 인류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전승자 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곁에서 사라지면 다시 무형 문화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제2조 제3항**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협약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르는 말로,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표현의 형태 자체(과정의 결과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이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세대 간 전수되고 소통되는 과정 (모든 조치)에 맞춰져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21세기 첨단 디지털시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고, 문화다양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나, 이 때, 화석화(박제화)되지 않고 전승되는 과정에서의 변형과 창조마저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연행 및 학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sup>26)</sup>

전승 공동체나 유산의 보호만큼이나 핵심적인 조항은 무형 유산의 보호에 있어 법적, 행정적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협약 가입 당사국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 모든 당사국은 자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sup>27)</sup> 이때 보호를 위한 감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sup>28)</sup>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목록’은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기초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사국 정부는 무엇보다 앞서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 기구의 참여와 함께,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요소를 감정하고 정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정책의 채택, 보호조치를 위한 관할 부서의 지정 및 설립, 연구와 훈련의 육성과 같은

26) 최중호 (2016).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23), 195-214

27) 협약 제 3장 제11조 1항

28) 협약 제 3장 제12조 1항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방안들은 목록의 수립과 등재된 것들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할 수 있는 주된 방법이므로, 당사국 정부는 다양한 교육 방안들을 도모하여야 한다.<sup>29)</sup>

## 2. 무형문화유산협약 등재 목록과 등재 기준

무형문화유산협약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이하, 긴급보호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하, 대표목록)이다. 긴급보호목록은 산업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표목록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sup>30)</sup> 한국의 경우 총 20건의 대표목록 (공동등재 3건)을 가지고 있으며, 긴급보호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없다.<sup>31)</sup>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Heritage)<sup>32)</sup>에서 명시하고 있는 등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세계유산과 달리 유산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판단,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29) Kim (2016). 위의 논문. p.43

30) 협약의 목적 중 하나가 사라져가는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니만큼 긴급보호목록이 우선시되나, 등재 추세를 보면 대표목록이 399건, 긴급보호목록이 52건으로 대표목록이 긴급보호목록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제도 하 문화유산이 845점, 자연유산이 209점, 복합유산이 38점인데 비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는 54점이 등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무형유산 또한 대표목록에의 등재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3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 (2005년), 강강술래 (2009년), 남사당(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 (2010년), 매사냥(2010년, 공동등재), 줄타기(2011년), 택견(2011년), 한산모시짜기 (2011년), 아리랑 (2012년), 김장문화(2013년), 농악(2014년), 줄다리기(2015년, 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2016년), 그리고 씨름(2018년, 공동등재)까지 총 20건이다. 2001년, 2003년, 2005년에 등재된 세 건의 경우 걸작선에 선정된 유산들로, 2008년 대표목록으로 전환되어 등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다등재국으로서 등재신청제한을 받고 있어 현재는 2년에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등재의 경우 신청에 제한이 없다.

32) 협약 이행 운영지침 관련 내용의 원본은 <https://ich.unesco.org/en/directiv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Value)<sup>33)</sup>를 따지지 않는다. 목록의 등재를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국가의 보호조치가 적절한지, 국가목록에 포함되어있는 유산인지, 관련 공동체의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얼마나 더 만족하는지가 더 중요하다.<sup>34)</sup>

협약의 운영지침에서 정의된 각 목록의 등재 기준은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보호목록 혹은 대표목록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목록에 따라 <표 1> 또는 <표 2>에 나와 있는 모든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긴급보호목록의 경우,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한해 무형유산위원회가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표 1>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준 3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마련 되어 있을 것.
기준 5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 (f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 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6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

33) 세계유산은 무형문화유산과 달리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0가지의 기준 중에서 OUV 1~6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OUV 7~10은 자연유산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OUV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wh\\_reg\\_criterion](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wh_reg_criterion)

34) 김지현 (2017). 위의 논문 p.167

<표 2>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

## 제2절 한국의 문화유산보호제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혹은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위한 기본 자격 중 하나는 바로 해당 유산이 신청국의 국가목록에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1964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前,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왔으며, 이는 2003년에 채택되어 2006년 4월에 발효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보다 수십 년이나 앞서 있다. 특히 1993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발효 이전까지 시행된 유네스코의 인간문화재(Living Human Heritage) 사업이 한국으로부터 소개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사회에 무형문화재가 가지는 중요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국내의 무형문화재 국가목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적으로 무형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이고, 둘째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이다.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관할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총 142개의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sup>35)</sup>되어 있고, 시·도 무형문화재의 경우 601개<sup>36)</sup>에 이른다. 국가 혹은 시·도의 목록에 지정된 경우 국내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정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시스템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협약 이전부터 국내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운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국제법적 흐름에서 마냥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도리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국내법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장에서는 국내의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제를 살펴보는 한편, 특히 무형문화재 방면에서 유네스코

35) 문화재청, 연도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통계표 참조.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earch/statistics-02.jsp&mn=NS\\_03\\_07\\_01](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earch/statistics-02.jsp&mn=NS_03_07_01)

36) 문화재청, 지정문화재 총괄(표) 참조.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cultural\\_info/cultureTotal\\_ccrebase\\_kor.jsp&mn=NS\\_03\\_07\\_03](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cultural_info/cultureTotal_ccrebase_kor.jsp&mn=NS_03_07_03)

무형협약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해본다.

## 1. 문화재보호법

1962년 문화재보호법<sup>37)</sup>이 제정되면서, 유형의 문화재는 물론 무형문화재까지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와 각 시도의 무형문화재로 나뉘어 지정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왔다. 단순히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예능의 보유자를 지정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호를 위한 전수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차원에서 전승지원금을 지원하여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동법은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무형문화재 보전의 근거가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은 원형 유지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 원칙<sup>38)</sup>으로 삼고 있다.<sup>39)</sup> 이는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훼손되었던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산업화로 인해 소실 위기에 처한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sup>40)</sup> 하지만, 원형 유지를 기본 근간으로 하는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은 변화성과 창조성의 성질을 가진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무형문화재는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와 전승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설정에 있어 학

37) 문화재보호법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문화재보호법#>

38) 무형문화재법이 따로 독립하여 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정책의 특징은 원형보존의 원칙 외에도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선택형 중점보호주의, 종목 중심주의, 보유자 중심주의, 최소한의 국가 개입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최종호, 2016). 이 중, 민속학자를 비롯해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핵심적인 부분은 박제화 된 모습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에도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유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2003년 무형협약의 목적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신법이 발효되면서 원형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디까지 전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39)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 원칙)

40) 최영화·민경선(2017),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9(2) : 29-54.

자 간, 전승자 간의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보유자가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의 경우, 같은 무형문화재 분야의 전승자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기·예능을 체득했는지에 따라 원형에 대해 다른 소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또한 보유자가 제자들에게 원형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전수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역량 등과 같은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무형문화재에 지정될 당시의 것과 같지 않을 가능성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변화 지양 보존 원칙은 무형문화재를 삶의 맥락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짜리 공연 콘텐츠로만 남도록 하는 박제화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원형과 전형 개념의 차이 외에도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또 있다. 문화재의 범주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신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41)</sup>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에서 정의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가 ①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② 공연 예술, ③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④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⑤ 전통 공예 기술 등, 기·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언어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문화재보호법에서 말하는 무형문화재의 정의가 터무니없이 좁은 범위인 것을 알 수 있다.<sup>42)</sup> 물론, 국내법적 기준이 국제법적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법이 국제법에 비해 협소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법적 기준으로 무형유산에 해당하는 국내의 여러 유산들이 국가 목록에 지정되지 못해 법과 제도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법적 범위를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사료된다.<sup>43)</sup> 실제로 제주해녀문화 또한 유네스

4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 12692호, 제1장 제2조 1항 2번 참조

42)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2항 참조

43) 최정화, 민경선 (2017). 33쪽

코 등재 및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지 못했다. 구법의 무형문화재 정의가 기·예능 및 공예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의 보존에 있어 문화재보호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 입법된 법률이다. 2015년 3월,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되었고, 2016년 3월 28일 발효되었다. 동법은 문화재 보호법과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가진다.

### 1) 원형에서 전형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성과 변화성, 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무형문화재를 지정 당시의 모습에 가둬놓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만큼은 그 보존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바로, 전형(典型, typifier) 개념의 도입이다.

원형과 전형 문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및 신법 제정 이전부터 무형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다. 전형의 개념은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틀이라는 뜻이다. 이는 동일한 원리가 반복 적용될 때 발생하는 내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개념으로<sup>44)</sup>, 표현된 형태보다는 그 형태를 창출하는 원리에 중심을 두고 있다.<sup>45)</sup> 즉, 기존의 원형 개념이 전수자들에게 지정 당시와 조금도 변하지 않

44) 송준. (2008).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의 보존(保存)과 활용(活用)에 대한 소고(小考) -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0), p. 225.

45) 송준. (2008). 위의 글. p. 226

고, 스승의 기·예능을 배긴 것처럼 동일하게 표현된 형태를 강제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었다면, 전형 개념은 기본의 틀거리만 유지된다면, 표현된 형태에 있어서는 변화의 여지를 둔 개념이다.

무엇보다 전형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여러 소수 분과의 무형문화재까지도 법·제도의 보호 아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문화재 지정에 있어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모습과 같은 일종의 기준이 있었던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과 달리 어디까지가 무형문화재의 전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전형 개념의 도입으로 인한 무형문화재 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형의 기준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나,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넓은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2) 무형문화재 범위의 확장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의 또 다른 차이는 무형문화재의 범주에 대한 정의에 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던 무형문화재의 범주는 기·예능 및 공예 분야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협소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발효된 무형문화재법은 국제법 동향과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주를 전통지식과 생활관습까지도 포함한 7가지의 범주로 확대하였다. 아래에 있는 <표 3>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의 무형문화재(유산)에 대한 정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3>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의 비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문화재보호법 (개정 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 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 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 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 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 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 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전통적 공연 · 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 · 어로 등 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바. 민간 신앙 등 사회적 의 식 (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 예 · 무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3) 보유자의 유무

문화재보호법은 원형보존의 원칙 외에도 보유자 중심의 보존정책을 펼쳐왔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든 종목은 해당 기·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보유자가 지정되어야만 했고, 보유자를 비롯한 전수 조교, 이수자, 전수자로 구성된 전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보유자 없는 단체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인을 보유자로서 지정할 수 없는 유산까지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통해 제주해녀문화는 2017년 5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로 등재되어 국내법 제도 아래 보호받고 있다.<sup>46)</sup>

46)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문화의 경우 그 공간적 범위가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

### 3. 시도 자치법규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국가로 인해 만들어진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도에서는 지역에 맞는 자치 법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때 만들어지는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은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문화재기본계획에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련된 것까지 다양한 방면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수립 후 동법 제7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또한 수립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완료 시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책임 또한 부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조례를 2009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해당 조례 제3조에서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포함된다. 그 예로는 유산 등재 이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 계획이 있다.

법규 제정이나 정책 및 사업의 신설 외에도 시도에서는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존될 가치를 지닌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을 시·도 문화재는 반면, 국가무형문화재 ‘해녀’는 한반도 전역의 ‘해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간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로 지정하여 보호<sup>47)</sup>하고 있다.

---

47) 문화재보호법 제 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에 근거하여 유형·민속·기념물 등이 지정·등록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를 근거로 한다.

### 제3장 제주해녀문화의 특징과 등재

2016년 11월 30일,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제주해녀문화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최종 등재되었다. 이로써 제주해녀문화는 농악(2014년)과 줄다리기(2015년)에 이어 열아홉 번째로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으며, 보호되고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야 할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주해녀는 자연친화적 방법을 통해 생태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유산이다. 따라서 제주해녀문화는 유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물론이고 무형문화유산분야에 있어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의 대화를 고취시킬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이듬해인 2017년 5월에는 제주해녀문화의 주요한 전승 주체인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에 등재되었다. 문화재청은 해녀문화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질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통적인 어로법이라는 점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유로 밝혔다. 이와 더불어 물질 경험을 통해 얻어진 생태 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이 상당하며 배려와 협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신앙이나 의례와 같은 해녀만의 독특한 생활문화 등,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보존 및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시사하였다.<sup>48)</sup>

48)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국가무형유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7,01320000,ZZ&pageNo=5\\_2\\_1\\_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7,01320000,ZZ&pageNo=5_2_1_0)

이처럼 해녀유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는 제주해녀문화의 이름으로, 국가무형문화재에는 해녀로 등재 및 지정되어 보호받고 전승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등재된 해녀유산이 같은 무형유산에 기인하고 있지만, 두 유산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유네스코 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문화는 공간적 범위를 제주도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의 경우 한반도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역적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유산의 지정 및 등재 대상 측면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는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으로 등재되었고, 국가무형문화재인 해녀의 경우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으로서 지정되었다. 이렇듯 공간적 범위와 지정 대상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유산 모두 유산의 공동체성을 해녀 유산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녀문화가 공동체를 통해 보존, 유지, 전승되기 때문이다.<sup>49)</sup> 두 유산의 등재와 지정에 대한 기본 사항과 차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 4>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4>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와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비교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법적 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명칭	해녀 (2017.5.1.)	제주해녀문화 (2016.11.30.)
범주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지정 및 등재 기준	전승가치(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및 기술성, 대표성)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며,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 입증 등

49) 고은솔·정상철 (2018). p. 321-322

지역	한반도 전역	제주특별자치도
----	--------	---------

출처: 고은솔, 정상철 (2018) p.322의 표 1 재구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국내의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 유산 제도 등장 이전까지 해녀는 무형문화의 전승자로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인구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잠수탈의장 현대화 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녀 관련 정책을 기준으로 제주의 해녀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세 번<sup>50)</sup> 바뀌었는데,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형문화로서의 해녀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sup>51)</sup>

아래의 <표 5>은 국내에서 해녀 연구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제주해녀와 관련하여 학문적, 정책적 그리고 국내외적 인식 측면에서의 변화를 정리한 연표이다. 1970년대 해녀 연구 초기부터 해녀 연구의 황금기를 맞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인류학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유네스코 유산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해녀 문화가 가진 무형유산적 가치로 해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정책 측면에서도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 미래세대로의 전승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전후 해녀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 또한 차가운 바다 밑에서 고된 어업 노동을

50) 고미 (2012.07.19.), '직업군 아닌 문화로 새 기준 마련 서둘러야, 5부 '잠녀'에서 미래를 읽다 - 제주잠녀·문화 정체성',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904>

51) 제민일보 고미 기자의 시기별 정책변화를 기준으로 한 해녀에 대한 접근법을 정리해보면, 제주의 해녀 관련 정책은 첫째, 잠녀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 시기 (1970~80년대, 잠수탈의장 현대화 시설 사업, 고무옷 보급 시기), 둘째, '직업군'으로서의 관리 시기 (감귤산업, 관광산업 등 외부적 요인, 고령화 등의 내부적 요인 등으로 인한 해녀인구 감소 - 의료비 지원 확대와 해남을 포함하는 해녀 자격, 그리고 잠녀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잠수복 지원), 셋째, 잠녀문화의 가치 부각에 따른 혼란기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로써 자리매김한 해녀, 지속가능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 등장 및 등재) 라고 할 수 있다. 기사가 작성된 2012년에는 등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등재 이후인 2019년 현재도 무형문화로서의 제주해녀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직종에서 무형문화를 보존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 전환이 일어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보다 유네스코 유산으로서의 등재가 앞서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신설된 데에도 유네스코 무형협약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고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해녀가 아닌 유네스코 등재 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문화를 중심으로 해당 유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제주해녀문화 관련 연표 정리

연도	내용
1970년대	초기 해녀연구 (향토 민속학적 연구 시작)
1990년대	해녀연구 황금기 (민속학, 문명사적, 인류학적 연구)
1998년	국외 언론사의 해녀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및 언론 보도
2002년 5월	한·일 월드컵 개막에 맞춰 해녀 축제 첫선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2005년 2월	한국,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2000년대 중반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작. 일본과의 공동등재 필요성 주창.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 해녀박물관 개관</li> <li>●11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sup>52)</sup> 제정</li> </ul>
2007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수풀 해녀학교 개관</li> <li>●‘탐라문화제’ 부대행사로서 ‘제주해녀축제’ 시작</li> </ul>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제주해녀축제’ 독립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월, 제주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 구성</li> <li>●9월,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 확정’<sup>53)</sup> (‘11~‘15)</li> <li>●‘제주해녀문화’ 잠정목록 등재 (preliminary list) 5순위.</li> </ul>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기: 일본, 드라마 ‘아마짱’ 방영으로 인해 일본 내 아마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일본이 한국의 해녀를 빼앗으려 한다는 대중적 여론 확산.</li> <li>●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대상 한국 대표 종목 선정</li> </ul>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산업 진흥 조례 제정</li> <li>●‘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발효</li> <li>●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최종 등재</li> </ul>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창립</li> <li>●5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 지정</li> <li>●6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li> <li>●7월, ‘해녀문화유산과’ 설치</li> <li>●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 수립(‘17~‘21)</li> <li>●해녀의 날 지정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li> </ul>
2018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분야, 해녀 복지 증진 분야, 소득 향상 분야, 작업 환경 개선 분야 등, 206억원 규모로 총 60개 사업 진행 중
2019년	해녀문화홍보마켓 사업,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신설,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해녀공연단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 활동 지원 확대, 해녀 물질 해산물에 대한 연구 진행 등 홍보, 지원, 복지, 연구, 전승 분야 정책 개선, 신설, 및 확대.

52) 2006년 11월 29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3)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제1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 계획은 제주해녀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1절 제주해녀의 역사

제주해녀의 역사는 3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위지 동이전 한조(韓條)에 “주호(洲胡)가 있는데 마한(馬韓)의 서해중 대도상(大島上)에 있다. 그 사람들은 조금 키가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으며 모두 머리를 깎아서 선비족과 같다. 단, 가죽옷을 입고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였는데 그 옷은 위쪽에는 걸쳤으나 아래는 없어서 벗은 것과 진배없었다. 배를 타고 한중(韓中)에 왕래하면서 교역한다”라고 기록된 바 있다.<sup>54)</sup> 주호는 탐라국, 즉 현재 제주도가 있었던 국가를 이르는 말로, 이즈음 중국에 탐라국의 존재가 알려졌고, 소와 말, 피륙, 해산물 등을 교역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책 동이전 왜인조(倭人條)에는 “규슈의 마츠우라 반도 부근 사람들이 물고기나 전복을 좋아해서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잠수해서 이것들을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두 기록물에 기인하여 제주와 일본에서의 물질 역사가 3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55)</sup>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제주의 여성들이 물질을 주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거의 없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나오는 복(鰔, 전복), 나육(螺肉, 소라), 해조(海藻) 등 해산물의 명칭 등을 통해 고려시대에도 탐라국 사람들에 의해 잠수를 통한 해산물 채취가 행해졌음을 짐작<sup>56)</sup>하는 것이 전부이다. <sup>57)</sup>

보다 현대에 가까운 해녀 관련 기록으로는 17세기, 조선중기의 학자였던 이건(李健)이 제주 유배 중에 작성한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03년경)를 꼽을 수 있

54) 고창훈 (2005). p. 3276

55) 고창훈 (2005) p. 3276. 위지 동이전 한조 와 왜인조의 기록.

56) 김선기 (2010), 제주해녀의 일본 진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일어문논집, 14(0), 189-208

57) 김선기 (2010)는 위의 논문에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문종 (文宗) 7년 (1053) 2월 조(條)의 기록을 소개하였다. 이는 '7년 2월 정축 탐라국 왕자 수운나가 자기 아들 배용교위 등을 보내어 소라 해조 등의 물품을 바쳤다'는 것과 문종 33년 (1039), '탐라의 구당사 윤운균이 큰 진주 두 개'를 바쳤다는 기록인데, 당시의 제주도 사람들이 나잠어업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자는 밝혔다. 다만, 해당 기록물에서도 현재 사용하는 '해녀'나 '잠녀', '잠수' 등과 같은 현대적 나잠업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 제주풍토기는 해녀를 지칭하는 잠수(潛嫂) 혹은 잠녀(潛女)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사료로서, 잠녀(潛嫂)를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캐는 여자이자 부수적으로 생복을 팔아서 관아에 바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sup>58)</sup>. 조선시대의 물질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행해졌는데, 당시 전복류와 같은 어패류의 채취 및 진상역은 남성인 포작에게 집중되었고, 잠녀(여성)들은 미역 등 해초류의 채취를 도맡아 하였다. 즉, 이건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7세기 초반 하더라도 전복 채취 등은 여성들의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진상역을 과도하게 부과함에 따라 포작들이 대거 제주를 이탈하였고, 해초류 채취뿐만 아니라 본래 포작의 일이었던 전복의 채취까지도 여성들이 맡아 하게 되었다.<sup>59)</sup> 이때부터 나잠어업은 제주 여성의 생업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sup>60)</sup>

조선 말기, 일본의 잠수기 어업 업자들이 제주 연안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나잠어법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제주해녀의 작업 현장이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맨몸으로 들어가 잠수자 본인의 숨에 의지하여 작업을 하면 통상 50초에서 2분 동안만 가능한데, 잠수기 어업은 수중에서 공기를 배급받으며 작업하는 방식으로 나잠어법보다 오랜 시간 물속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지만, 그만큼 어장을 빠르게 황폐화시키는 어업 방식이다. 실제로 1880년대 초<sup>61)</sup>에는 일본 잠수기 어선 137척이 한 번에 전복 200관을 채취해가기도 하면서 해녀가 활동하던 제주도 연안의 어장이 급격히 황폐화되고 어획물이 감소하였다.<sup>62)</sup> 이에

58) 김선기 (2010). p. 192

59) 박찬식 (2004).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135-164

60) 김선기(2010)는 그의 논문 191쪽에서 1694년 제주목사를 지낸 이익태가 기록한 제주 지역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17세기 후반 이익태는 진상품 생산으로 힘들어하는 제주해녀들에 대해 '미역을 캐는 잠녀가 많게는 8백 명에 이르는데 물속에 헤엄쳐 들어가 미역을 캐는 일은 채복녀(採腹女=전복을 캐는 해녀)나 다름없다. 앞으로 전복을 캐는 사람이 없게 될 일을 염려하고 과도한 균역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미역을 캐는 잠녀에게 전복 잡는 기술을 익히도록 권장하고는 추복 및 인복을 나누어 맡겼다'라고 기록하였다. 미역 채취뿐만 아니라 어패류 채취의 일까지도 제주해녀가 맡아 하게 되면서 본래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이었던 나잠어업이 여성 중심의 어업 문화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61) 제주해녀의 출가어업과 일본인 어선의 조선 진출 시작 동기는 1876년 체결된 '한·일 간 병자수호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선기(2010)의 논문 196쪽 참조.

62) 김선기 (2010) p. 196.

따라 제주해녀들은 1895년부터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 한반도 전역은 물론 1903년 일본의 미야케지마와 미에현을 거쳐 중국의 칭다오와 다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출가물질을 나서며 작업 반경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일본 어선의 제주 연안 진출과 어장의 황폐화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출가물질이지만, 이는 해녀들로 하여금 경제적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진상역 착취의 대상으로 해녀의 노동력을 부렸던 것과 달리, 일본 어업업자들과의 물질 작업은 해녀로 하여금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제주해녀들이 해초 및 어패류를 경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해녀들이 제일 많이 진출했던 국가는 일본으로, 이는 일본의 어업업자들이 일본 아마와 비교할 때 월등한 작업 능력을 가진 제주해녀들을 수입해갔기 때문이다. 제주해녀들이 일본으로 진출함에 따라 조선으로 진출하는 일본 아마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고, 이와 반대로 제주해녀의 저렴한 임금과, 높은 능률, 보유하고 있는 해녀 기술은 일본 현지에서 큰 환대를 받았다. 일본의 아마들은 1929년 이후로 완전히 조선에서 떠나게 된 반면, 제주해녀들은 1932년대, 최고 호황을 누리며 국제무대에서 활동하였다.<sup>63)</sup>

현대의 해녀 개념인 제주해녀라는 명칭도 일제 강점기 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 나잠업자들은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잠수 혹은 잠녀로 불리어왔는데,<sup>64)</sup> 일본의 나잠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일본의 아마(海女)와 한자가 같은 해녀라는 명칭이 유입되었다. 현재,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명칭은 해녀로,<sup>65)</sup> 이는 조

63) 좌혜경 (2002) p. 237. 1895년을 시작으로 출가를 시작한 제주해녀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던 1932년(소화7년)에는 일본에 있는 제주해녀의 수가 1600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 수는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 1956년에는 1만 8천명, 1970년대에는 1만 1천명의 제주해녀들이 출가어업을 나섰었다. 이른 봄에 출가하여 추석 전에 돌아오는 것이 으레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 출가물질을 가는 것은 제주의 해녀들에게 흔한 일이었다. 또한 그렇게 출가물질을 나갔다가 일본에 정착한 해녀의 수도 상당하다.

64) 2000년대 초반의 논문을 찾아보면 제주 지역에서 여성 나잠업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흔한 호칭으로 ‘잠녀’ ‘잠수’ 혹은 잠수업자들을 낮잡아 보는 ‘바바리’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현재 잠녀 명칭의 사용상 빈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개념으로의 잠녀가 아닌 제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으로서 나타나는 여성으로 구성된 나잠업자를 가리킨다.<sup>65)</sup>

탁월한 물질 기술을 지닌 해녀들이 일본 현지에서 환대받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 물질의 황금기를 보냈다고 하지만, 해녀에 대한 착취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어김없이 존재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착취의 사례는 바로 노동력의 착취이다. 일제 시절 출가물질 임금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70년 4월 1일자의 제주일보 기사에서 업자들이 양국의 아마와 해녀를 차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예를 들어 당초 kg당 채취요금을 36원으로 하여 하루 250kg씩 채초하고, 그 이익금을 선주와 50%씩 나눈다고 하여도 월 9만원을 받아야 하는 해녀들이 고작 5만원의 월급을 받았던 것이다. 제주해녀들이 일본의 아마들보다 세 배에서 네 배 빠른 작업 능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본 아마들이 일당 5천원씩 20일을 기준으로 10만원씩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제주의 해녀들은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았던 셈이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착취의 역사는 1970년대 물질에서도 빈번히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7)</sup>

이러한 노동력 착취와 어장 황폐화, 해녀들의 권익을 짓밟는 행위에 맞서기 위해 해녀들은 일찍이 19세기 초반부터 잠수회를 조직하여 잠녀활동(해녀활동)을 지원 관리하는 하나의 결사체를 결성하였다. 20세기 초반, 해녀들이 해외로 뺏어나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발판 또한 잠수회의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순전히 자신 개인의 기량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장을 관리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며 물질에 임하여 해녀문화의 전승에 힘쓰는 제주해녀의 특성상 이러한 조직의 결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잠수회는 어용화되어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커녕

---

65) 좌혜경 (2002). 위의 논문. p. 230

66) 김선기 (2010), p.190

67) 좌혜경 (2002) p. 238

횡포가 극에 달해 당초 잠수회가 조직되었던 목적성을 상실해갔다. 1930년에 발생한 해초 부정판매 사건 이후, 해녀들은 관제 해녀조합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독자적으로 해녀회<sup>68)</sup>를 조직하여 단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31년에 조합에서 하도리 해녀가 채취한 감태와 전복의 가격을 강제로 싸게 책정하려던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항의에도 변화가 없자 직접 투쟁에 돌입하였다. 해녀의 투쟁은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연간 1만 7천 명의 인원이 투쟁에 참여하였고, 시위 횟수는 연 230회에 달하였다. 당시 해녀의 투쟁은 해녀조합의 횡포에의 저항과 생존권 수호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던 여성 중심의 대규모 항일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69)</sup>

제주에서 해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들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고된 바닷일을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제주도의 해녀들은 어획물을 통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헌납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이 시작도 하기 전인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제주도 경제의 기반을 이끈 산업은 제주해녀가 채취한 뽕소라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이때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제주도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sup>70)</sup> 이와 더불어 해녀들은 기금 마련을 위한 바당을 조성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는데, 그 예로는 1950년대 화재로 전소한 온평 초등학교의 재건을 위해 성산읍 온평리 해녀들이 조성했던 학교 바당<sup>71)</sup>을 들 수 있다. 당시 해녀들은 학교 바당에서 채취한 미역을 팔아 얻은 수

68) 그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긴 하였지만, 잠수회(해녀회)와 어촌계는 2019년 현재에도 활발하게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금채기와 해제기를 특정하여 자원을 관리하고, 물질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앞장 서 미래세대 해녀들을 교육하고 관련 지식을 전수하는 것 또한 이들 공동체이다.

69) 박찬식 (2004). 위의 논문. p.156-159.

7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유산과 직원은 현재 해녀들이 많은 지원을 받는 이유가 과거 제주도 경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제주도의 도로와 건설 등 많은 부분에서 해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71)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p.49-50

익 전부를 학교건립자금으로 헌납하였고, 이를 토대로 1951년부터 1958년 학교를 재건할 수 있었다.<sup>72)</sup>

착취와 고통의 역사 속에서 단단한 결사체를 구성하여 맞서 싸우고, 차디찬 물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며, 제한된 바다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베푸는 제주해녀의 강인함과 지혜, 조화의 정신은 바로 해녀가 걸어 온 기나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

72)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제2전시실 '사회헌신과 참여'  
- <http://jmp.jeu.go.kr/haenyeo/exhibit/second/second5.htm>

## 제2절 제주해녀문화 속 유·무형 문화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문화에는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들이 포함되어있다. 사냥 및 채집에 대한 전통 지식, 민속 지식, 지역적 지식 등과 더불어 바다 밑으로 나가기 위해 노를 저으며 부르던 해녀 노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며 지냈던 잠수굿 등의 무형문화유산, 불턱과 같은 유형적 공간, 태왁 망사리, 물소중이와 같은 유형적 유산, 배려와 협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문화, 등 많은 유·무형 문화유산들이 제주해녀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에 언급된 유산을 중심으로 해녀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화재 목록에 오른 도합 네 건의 지정문화재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떠한 이유로 국내 체제 안에서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해녀문화와의 관련성은 어떤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또한 2014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당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제주해녀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화유산들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의에 대해서도 논해본다.

### 1.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로서의 해녀문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해녀문화 관련 문화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가 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경우 1980년 11월 17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해당 유산은 무형문화재/의례·의식/민간신앙의례로서 분류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에 의해 관리



되고 있다. 현재 한 명의 보유자와 세 명의 전수교육조교가 해녀 신앙의 상징인 영등굿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sup>73)</sup>

제주칠머리당영등굿<sup>74)</sup>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지역 특유의 민속신앙을 잘 보여주는 예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해녀의 굿이라는 점에서 특이성과 학술성을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칠머리당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sup>76)</sup>에 위치해 있는데, 굿날에는 해녀뿐만 아니라 건입동 주민, 제주시내 어부와 해녀들까지도 참여한다. 제주도의 영등굿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영등신이 들어오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영등신이 제주를 떠나는 2월 보름에 영등송별제<sup>77)</sup>를 한다. 보통 환영제보다 송별제를 더 성대하게 치르는데, 어업 관계자, 해녀, 등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큰 굿판이 벌어진다.

영등굿의 주신이 되는 영등신은 본래 풍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바람과 해상 어업은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업과 관련된 신이 되었으며,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해녀 또는 어부의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다. 굿의 진행을 보면 영등굿에 해녀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 ① 초감제: 모든 신을 청하여 좌정시키고 기원하는 제차
- ② 본향듬: 본향당신을 청하여 기원하고 놀리는 제차
- ③ 요왕맞이: 용왕·영등신이 오는 길을 치우고 닦아 맞아들이고 기원하는 제차

73)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390071000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3900710000#)

74) 이성훈, 2014. 『해녀연구총서. 2 (민속학)』

75) 1980년 지정 당시의 이름은 '제주 칠머리당굿'이었으나, 2006년 6월 19일 '제주칠머리당영등굿'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입동은 과거부터 어로와 해녀작업을 생업으로 삼은 마을로, 현재는 제주항이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는 달라졌지만 어업 중심지로서의 성격은 그대로이므로, 굿 또한 해상 생활과 생업의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영등신에 대한 영등굿의 형식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본래 칠머리당 본향당신보다도 영등신이 주가 되어버린 굿이다.

76) '본향당'은 마을 전체를 자치하여 수호하는 당신을 모신 곳으로, 칠머리당 영등굿의 이름은 당이 위치한 지명에서 영향을 받았다.

77) 편의상 2월 보름으로 일축해 놓았으나 사실 송별제는 2월 14일에는 마을에서, 2월 15일에는 구좌읍 우도에서 총 두 번 치러진다.



- ④ 마을 도액막음: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제차
- ⑤ 씨드림: 해녀 채취물인 미역·전복·소라 등의 씨를 뿌리고, 그 흥풍을 점치는 제차
- ⑥ 배방선: 영등신을 배에 태워 본국을 치송하는 제차
- ⑦ 도진: 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sup>78)</sup>

씨드림에서 해녀의 채취물인 미역과 전복, 소라의 씨를 뿌려 흥풍을 점치는 것을 보아 영등굿에서 해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영등굿이 해녀들의 신앙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는 해녀 자체가 무형문화재로서 보존될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되었다. 유네스코의 해녀와 지역적 범위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의 해녀들이 19세기 말부터 한반도 각지로 출가물질을 나갔으며, 그 지방에 정착한 1세대로부터 해녀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므로 해녀문화의 발원지가 제주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견의 제주풍토기를 비롯해 여러 문헌을 통해 해녀가 17세기 조선시대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제주해녀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해녀들은 산소 공급 장비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원초적인 어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로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해녀는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 새롭게 제정된 무형법에 등장한 새로운 무형문화재 범주이기 때문에 연구 가치 또한 유의하다. 해녀의 물질 기술과 생태 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은 상당하며, 배려와 협업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sup>79)</sup>

78) 이성훈, 2014. 『해녀연구총서. 2 (민속학)』 p. 53-54

79) 문화재청,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255&sectionId=b\\_sec\\_1&mn=NS\\_01\\_02](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255&sectionId=b_sec_1&mn=NS_01_02)

## 2. 시·도 지정 문화재로서의 해녀문화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문화재는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해녀노래<sup>80)</sup>와 2008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로 등록된 제주해녀의 물웃과 물질 도구<sup>81)</sup>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는 과거 제주의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나갈 때 노를 저으며 불렀던 해녀 노 젓는 소리<sup>82)</sup>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 섬 문화의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말 출가물질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라진 수많은 노동요처럼 해녀노래도 노동 기능성은 상실했지만, 현재에도 김영자·강등자 해녀노래 예능보유자<sup>83)</sup>를 비롯해 여러 전수생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해녀노래는 노동요, 유희요<sup>84)</sup>, 항쟁요<sup>85)</sup>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유형은 노동요에 속하는 해녀 노 젓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선소리와 후렴으로 구성되는 선후창의 형식, 독창 형식 그리고 교환창 형식 등 여러 형태로 불린다.

8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2&s\\_ctcd=50&ccbaKdcd=22&ccbaAsno=00010000&ccbaCtcd=50&ccbaCpno=2223900010000&ccbaLcto=00&culPageNo=1&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2#](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2&s_ctcd=50&ccbaKdcd=22&ccbaAsno=00010000&ccbaCtcd=50&ccbaCpno=2223900010000&ccbaLcto=00&culPageNo=1&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2#)

8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 제주해녀의 물웃과 물질 도구’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4&s\\_ctcd=50&ccbaKdcd=24&ccbaAsno=00100000&ccbaCtcd=50&ccbaCpno=2443900100000&ccbaLcto=00&culPageNo=9&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4](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4&s_ctcd=50&ccbaKdcd=24&ccbaAsno=00100000&ccbaCtcd=50&ccbaCpno=2443900100000&ccbaLcto=00&culPageNo=9&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4)

82) 해녀노래는 ‘배젓는 소리’, ‘이엿싸 소리’, ‘네 젓는 소리’, ‘잠수 소리’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 노래를 학계에서는 ‘해녀 노 젓는 소리’로, 일반 시민들은 ‘해녀 노래’로 부른다.

83)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는 해녀노래의 보유자가 ‘故안도인’ 선생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안도인 선생은 지난 2004년 별세하였고, 2005년에 김영자와 강등자 선생이 해녀노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84) 유희요소서의 해녀노래는 ‘강강술래’나 ‘사시랭이소리’ 등과 같이 과거부터 유희요로써 기능해온 민요가 아니라, 1962년 대구에서 열린 제 10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제주시 남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해녀놀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무대화 된 해녀노래라고 할 수 있다. a해녀의 노래로서의 해녀노래와는 성격이 달라 본문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좌혜경, p.142-143)

85) 1932년 세화리 항쟁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신민요로, 항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녀노래는 해녀의 노동과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해녀노래의 사실은 물질작업 출발부터 노동의 목적<sup>86)</sup>, 작업 도구나 시간, 공간 등의 노동 상황<sup>87)</sup>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해녀들은 노래를 통해 노동을 촉진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정신적으로 분발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자 하였으며, 노동을 독려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해녀 작업의 고됨과 자신의 삶에 대한 비탄과 같은 한의 정서, 의기로 온 삶에 대한 이야기, 해녀의 신앙과 믿음, 현실적 인식 등에 대한 해녀의 정서 또한 녹아 있다. 이렇듯 해녀 노래는 해녀의 삶이 녹아 있는 생활 문학이기 때문에 해녀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88)</sup>

두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 문화재 제10호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 도구는 물소중이를 비롯한 15점의 물옷과 물질도구를 이르는 것으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해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 중 제일 오래되고 출처가 분명한 것들을 기능별로 한 점씩 지정한 것이다.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유물은 물소중이(소중이), 물적삼, 물체(물치기), 수건과 까꾸리, 테왁 망사리, 족쇄눈(쌍안경), 쇠눈(왕눈, 단안경), 눈곽, 빗창, 종개호미, 호맹이(까구리), 작살, 성게채, 성게칼, 질구덕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문화재는 나잠어로 방식으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환경에 맞게 고안한 것으로 민속지식이 잘 응축되어 있고, 해산물 채취에 대한 지혜의 소산으로서 지니는 가치가 높으며<sup>89)</sup>, 해녀문화 연구에도 필수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sup>90)</sup>

86) 좌혜경은 해녀들의 노동목적이 금전추구였다고 주장하였다. 논문에 수록된 해녀 노래의 사실을 보면, ‘말모른 돈아돈아 돈이좋지 않으면은/ 어느 누굴 믿고서 여기 왔다’ 등, 노골적으로 물질작업의 금전목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 해녀들에게, 결혼 전 물질 작업으로 혼수를 마련하고, 출가물질을 해 집이나 밭을 마련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87) 좌혜경, p. 155  
‘지픈물속 들어가니/고동생복은 쌍엿건마는/ 숨이바빠 못하더라’  
물 속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88) 좌혜경 (2006), ‘해녀 노래에 나타난 노동기능과 정서’,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p.137 -166

8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443900100000>

90)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12120](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12120)

### 3.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서 속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문화에는 많은 유·무형의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무형적 유산들에는 작업할 때 부르던 해녀 노래, 영등굿과 같은 신앙적 부분, 나잠어업을 할 때 사용하던 물옷과 물질 도구, 해녀 기술 등은 모두 명시적으로 국가 및 시·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것들이 있다. 이 장에서는 공간적 개념의 불턱과 탈의장, 배려와 협업, 공존으로 대표되는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 논한다.

#### 1) 해녀들의 소통 공간, 불턱과 탈의장

불턱은 해녀들이 찬물에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물질 도구를 준비하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노천 탈의장을 이르는 말이다. 1970년대 고무옷 등장 이전 해녀들은 무명으로 만든 전통잠수복을 입고 물질하였다. 면으로 만든 물적삼(상의)와 물소중이(하의)는 옆트임이 있어 갈아입기 편하고, 물속에서 움직이기 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sup>91)</sup>, 체온 유지가 어려워 물질 작업을 20분 내외로 제한하였다. 때문에 해녀들은 바닷가 근처에서 차가워진 체온을 덥히고 물질작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바닷가 근처에 돌을 쌓아 바람을 막는 돌담 형태의 불턱이 만들어졌다.<sup>92)</sup> 그러나 불턱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고 불을 쬌는 공간만이 아니었다. 불턱은 초심자들이 상군 해녀의 경험을 듣고, 이를 통해 물질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기술 연마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며 해녀로서의 책임감을 얻는 곳이었다.<sup>93)</sup> 또한,

91) 오세미나 외 (2015),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들', 무형유산포럼 편, 『무형유산연구』 제1권:249-270

9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p. 50.

93) 제주해녀문화의 등재신청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턱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At the bulteok, a type of outdoor fireplace at the seashore, or more modern facilities for haenyeo to rest, novices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예절, 미덕, 배려, 이해 등 제주해녀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윤리를 터득하는 곳이기도 했다.<sup>94)</sup> 이러한 점에서 불턱은 단순히 물질을 잘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적(functional) 공간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해녀문화와 기술 전승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불턱은 현대식 탈의장의 보급으로 점차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는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남아있다.<sup>95)</sup>



<그림 1>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소개된 불턱의 모습

acquire relevant knowledge, motivation to improve skill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by listening to others' experiences, especially from sanggun haenyeo.”이다. 원문에서는 해녀가 될 수 있는 불턱과 현대식 시설 모두를 포함하지만, 현대식 시설이 과거 불턱과 같이 해녀문화전승의장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문에서는 문화전승기능을 과거의 ‘불턱’ 기능으로만 보았다.

94) 오세미나 외 (2015), p. 9

95) 과거에는 마을마다 3-4개의 불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제주도 전역에 약 70개 정도의 불턱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오세미나 외 (2015), p. 9)





<그림 2> 해녀박물관 근처, 모진다리 불턱의 모습

현대식 탈의장은 해녀보호를 위해 1985년부터 각 마을에 설치되었다. 온수 목욕 시설과 온돌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해녀들은 온돌방에서 물질 작업을 준비한다. 특히 197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고무옷은 예로부터 사용되던 무명 잠수옷과 비교할 때 체온유지가 용이하여 작업 시간이 늘어났고, 20여 분마다 몸을 녹여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주었다. 제주도 현지의 해녀들에 따르면, 무명 잠수옷을 입었던 시절에는 불을 쬔 수 있는 불턱이, 고무 잠수복을 입는 현재는 현대식 탈의장이 더욱 적합하다고 하였다.<sup>96)</sup>

96) 현대식 탈의장은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준비하거나 휴식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과거 ‘불턱’과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용 형태를 보면 두 공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불턱의 경우, 상군과 하군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도 차이를 두었고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곳에는 상군 해녀가, 바람이 드는 곳에는 하군 해녀가 앉는 등), 이를 통해 해녀공동체 내에서의 위계질서가 드러났다. 기능의 전수와 교육, (특히 상군 혹은 대상군, 나이 많은 해녀에 의해) 마을 대소사가 결정되는 것,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쉬기만 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식 탈의장에서는 상군, 중군, 하군의 공간적 구분이 사라졌고, 탈의장 내에서 해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없다. 고무 잠수복과 현대식 탈의장이 가져온 해녀문화의 변화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2) 공동체 문화

제주해녀문화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 문화라 할 수 있다. 제주해녀에 문화라는 말이 더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제주해녀문화의 핵심은 어로 기술도, 물질 도구도 아닌 제주 지역의 여성 나잠어업인 공동체가 만든 배려와 협동, 공존의 문화이다. 해녀들이 사용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질 기술, 어로방식 또한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해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 공동체는 배려, 협동, 공존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녀공동체의 배려와 공존의 문화를 잘 볼 수 있는 예는 할망 바당, 애기어멍 바당, 반장통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 어장들이다. 해녀들이 물질 작업에 임하는 바다는 수심 5미터에서 20미터에 이르는 깊은 바다이다. 아무리 노련한 물질 기술을 가진 상군 해녀였다고 할지라도, 물질 기량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이거나 고령의 해녀들에게 깊은 바다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에 해녀 공동체는 비교적 수심이 얕은 바다를 할망 바당으로 지정하여 60세 이상의 고령해녀<sup>97)</sup>에게 양보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애기어멍 바당은 임산부를 위한 어장, 반장통은 해녀 반장을 위한 바당이다. 이렇듯 해녀들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배려와 공존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sup>98)</sup>

현재는 해녀의 물질기술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들의 민속지식이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가치로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해녀가 물질에 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다. 정해진 구역(마을어장)에서 물질에 임하는 시간 내에 누구보다 더 많이 채취를 해야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물질을 나

97)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에서는 60세 이상의 해녀를 고령해녀라고 칭하였으나, 실제로는 60대 해녀가 젊은 층에 속하고, 70대가 평균, 80대 이상도 활발하게 물질에 임하고 있다.

98)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p. 61-62

서는 해녀들은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녀들은 서로를 경쟁자임과 동시에 동료로 인식한다. 해녀들은 물질을 나설 때 항상 짝을 이루어 서로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물질을 한다. 해녀들은 이를 통해 물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며, 배려한다.<sup>99)</sup>

해녀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물질에 임하며, 자연 그리고 환경과 공존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해녀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도 내 마을어장에서 채집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 업에 종사했던 여성을 이르는 말이다. 마을어장의 입어권을 각 마을의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가입이 필수적이며, 어촌계를 가입하고 나면 해녀들은 마을의 해녀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해녀회에 소속되어, 해녀회가 정한 규율에 따라 물질작업에 임하게 된다. 해녀회 자체 규약은 해녀 본인과 동료 해녀, 바다의 자원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회원자격, 금채기와 해채기, 상부상조 회칙 등이 포함된다.<sup>100)</sup> 금채기는 산란기를 맞는 생물이나 어린 생물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자원을 보호하고, 해녀 물질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해녀들은 소라나 전복의 치패를 마을어장에 뿌려 바다자원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바다정화활동에도 참여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해녀들은 바다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간다.<sup>101)</sup>

해녀는 개개인의 물질 기량을 가지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1인 경제주체이지만, 해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해녀공동체가 추구하는 배려, 공존, 협동의 가치를 따르고 유지하며 전승해야 한다. 해녀문화는 개개인의 물질 기술이나 도구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낸 가치와 삶의 방식이 더 큰 의미를 가

99) 유철인 (2018). 제주해녀의 유산화: 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4회 한중인문학 포럼.

100) 오세미나 외 (2015), p. 10

101) 유철인 (2018) 위의 글.



진다. 공동체 문화는 해녀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며, 공동체 문화를 배제한 제주해녀 문화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제3절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제주해녀문화는 2011년 아리랑, 김치, 인삼, 구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예비목록(preliminary list)에 이름을 올렸다. 해녀노래가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제주해녀문화의 극히 일부일 뿐, 제주해녀문화 자체가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무형문화재로서 국가목록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때문에 제주도는 2009년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재 신청 자격을 갖지 못했다. 이에 2012년 제정된 문화재청 예규 109호 (현, 예규 161호, 2016년 개정),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sup>102)</sup>에서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을 위한 국가목록에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외 예비목록 규정이 만들어졌고, 본 규정은 예비목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 목록<sup>103)</sup>이라고 정의하여, 결국 제주해녀문화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예비목록에 이름을 올렸다.<sup>104)</sup>

102) 해당 규정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43532>

103) 위의 규정 제2조 (정의)

104) 다음은 2016년 개정된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예규 제 161호)의 예비 목록에 대한 조사와 선정에 대한 조항 일체이다. 2014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당시 등재 신청서에 포함된 규정은 2012년 최초로 제정된 문화재청 예규 제 109호의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5년 월 27일)에 따른 정책상, 용어상의 변화로 인해 개정되었으나, 예비목록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개정된 규정을 첨부하고자 한다.

**제3조 (예비목록의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명칭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범주
3.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년 및 정의
4.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제주해녀문화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 다섯 가지에 다음과 같이 부합한다.

첫째, 제주해녀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그들의 회복탄력성 정신의 근간이 된다. 제주지역의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해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그들의 강인한 정신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해상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물질 기술은 해녀학교를 통해 선배해녀로부터 후배 해녀에게 전승되고 있다. 각 어촌계는 공동 물질을 통해 공동체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과 문화적 지속성을 증진한다. 산소 공급 장치 등의 선진 어로 도구(advanced fishing method)의 사용을 지양하는 해녀의 물질은 생태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및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인식과 가계소득증진을 통한 여성의 권리 중에도 기여하고 있다.

둘째, 유산의 등재는 현지 지식(local knowledge)을 기반으로 한 무형문화유산적 요소에 대한 세계적 가시성과 자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여성의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해녀공동체와 유사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의 문화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해녀는 시, 소설,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등 장르를 불문하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으며, 이는 인간의 창조성을 입증한다.

셋째, 제주해녀문화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과거, 현재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은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 주정부의 책무를 반영한 포괄적 틀을 이룬다. 제안된 조치

- 
- 5.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 및 실현 방식
  - 6. 해당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 7.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호조치 방안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예비목록의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들은 홍보, 바다 자원 관리, 해녀의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조치에는 소득을 위해 잠수하는 것과 관광객을 위해 잠수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잠수시간 감소, 지역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잠수 협동조합의 대표들이 조치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유산의 등재 과정 전반에 걸쳐 제주해녀공동체와 연구자,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제주특별자치도 정부가 참여하였으며, 제주 지역의 모든 마을 어촌계와 100개의 해녀회의 장(長)으로부터 등재에 대한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다섯째, 해당 유산은 2011년에 국가 무형문화재목록에 등록되었다. 해당 목록은 공동체, 관련 비정부기구, 개개인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성되었다. 본 목록은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105)</sup>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화선을 당긴 것은 바로 제주해녀와 유사한 무형문화로 알려져있는 일본의 아마(海女)였다. 아마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녀라는 명칭을 도입시킨 장본인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두 무형문화의 공동등재 가능성/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창하였다<sup>106)</sup>. 하지만 지난 2013년, 일본의 NHK 방송사에서 ‘아마짱’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본 드라마는 한 소녀가 할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되었으나 인기를 얻게 되면서 아이돌이 되는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로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아마에

105) “Decision of the Committee: 11.COM 10.B.24” 참조

106) 다음은 ‘제주해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도, 일 아마문화와 공동으로’ 라는 제목의 2011년 2월 7일자 기사이다. 기사 초입에 ‘제주도는 올해 일본과 공동으로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일본 드라마 ‘아마짱’ 방영으로 인한 문화 한일전 발발 이전, 국민들의 여론과는 별개로 학자들에 의해 공동등재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208014003>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양국의 언론들은 해녀와 아마 문화의 원조를 두고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하였고, 국내에서는 아리랑을 중국에 빼앗길 뻔했던 것처럼 해녀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고, “일본에 우리 해녀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잠정 목록 5위에 있었던 제주해녀문화는 우선순위가 상승되었고, 2014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에 제주해녀문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몇 차례의 평가와 보완을 거쳐 마침내 2016년 11월 30일, 최종 등재 결정을 받았다.

국내 무형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국가 간의 문화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시급성이 국민적 여론으로 인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은 제주해녀문화 등재의 하나의 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해녀문화와 일본 아마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학자들에 의해 공동등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제주해녀가 일본에 정착하며 후세대를 양성하기도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출가물질을 통해서 양 국가 간 많은 문화의 교류와 변용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하다. 무형문화유산은 세계유산과 달리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공유되고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유네스코는 유사 유산의 단독등재보다는 국가 간 공동등재를 권고하고 있다.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등재한 유산의 예로는 매사냥<sup>107)</sup>과 씨름<sup>108)</sup>이 있다.

107) 아랍에미리트의 주도로 공동등재에 참여한 유산이다. 지난 2010년에 등재되었다. 공동등재의 경우 단독 등재의 경우보다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등재 1순위이다.

108) 씨름은 당초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대한민국의 씨름 (전통 레슬링)’ (Ssireum, traditional wres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 로, 북한은 2016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씨름 (한국식 레슬링)’ (Ssirum<Korean wrestling>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명칭으로 각각 등재신청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공동등재 제의와 무형유산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남북의 협력과 의지로 2018년 11월 26일, 최종 등재 결정되었다. 하지만 본 공동등재 사례는 신청서 작성부터 공동으로 준비하고 착수하는 보통의 공동등재와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 2016년 해녀 이후 무형유산 최다등재국 중 하나인 한국은 등재신청 제한을 받아 2017년에 등재하지 못하고 2018년 씨름을 단독으로 등재할 예정이었다.

## 제4장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유산의 전승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앞서 2장과 3장에서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어떻게 국내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한 바 있다.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 해녀문화는 국내 무형문화재 지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목록에 지정되어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유산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산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은 해당 문화재가 국가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국내법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본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목록지정이 선행된 후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순서이므로, 본 연구자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모두가 유네스코 유산 제도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의 등재는 세계문화유산과 같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일반 대중에게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는 자국의 무형문화가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유산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제주해녀문화 또한 이러한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제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제주도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109)</sup> 이에 본 장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유

109) 제주에서 해녀는 단순히 여성 어업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로서 제주를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따라서 ‘해녀’ 관련 사업은 유네스코 등재 이전에도 제주도의 주된 사업 대상이었다.

산의 전승 현황을 정책, 사업, 교육, 전승 프로그램<sup>110)</sup>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연구 문제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가 유산의 전승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문화 관련 조례와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신설·강화되었는가?

둘째, 유산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의 실질적 행사자인 전승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가?

셋째, 유산의 생명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 전승자를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전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가?

넷째, 해당 유산의 등재가 해녀문화 인식 및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

110) 무형유산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의 노력을 대표하는 정책 및 법령의 신설 및 강화, 지원사업이나 복지와 같은 행정적 사업,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전승 노력이 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노력이라고 본 연구자는 보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같은 국가 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어촌계 및 해녀 공동체까지 모두 영향권 아래에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는 법제 제정 및 정책의 시행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 의료수당이나 은퇴수당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 해녀학교의 건립과 같은 전승·교육 강화 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및 시·도 정부, 혹은 어촌계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그를 증빙하는 공식적인 문서들이 존재한다. 이들 문서에는 국가 및 시·도자치정부의 법령, 정책, 진행 사업, 복지, 지원, 전승 등에 관련된 조례, 보도자료, 정부간행물 등이 포함되며,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등재 이전과 이후의 공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연구대상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로 전승하기 위한 핵심 주체를 국가가 아닌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공동체, 집단, 개인<sup>111)</sup>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연구 대상은 제주해녀문화의 전승 공동체(해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협약이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해 당사국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당사국이 이에 따라 수많은 정책을 쏟아낸다고 하여도, 무형유산을 보유한 전승 주체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해녀의 생명력 강화 활동 참여가 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과의 인터뷰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

111)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라는 개념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등장한 것으로서, 함한희(2017)에 의하면 하나의 관용어로서 자리 잡은 용어라고 한다. 이는 무형유산 전승에 참여하는 전승자 및 전승자 그룹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 2. 연구 방법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통계분석과 같은 수학적 방식을 사용하여 객관적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대조되는 것으로써 선별된 사회적 현상이나 인물, 혹은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는 연구방법이다.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확보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귀납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2)</sup>

본 연구자는 다음의 이유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제주해녀문화의 생명력 강화, 즉 보호와 전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주체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공무원, 어촌계원, 해녀와 같이 제한적인 행사자라는 점, ②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전부터 다양한 조례 및 정책이 존재해왔으며, 유산 등재 이후 범위나 자격이 확장되는 등, 법령 및 정책의 수 보다는 그 내용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③ 무형유산의 특성 상, 법령 등에 공시되는 명시적 자료보다도 무형문화의 직접 행사자인 해녀의 경험이 등재 이후 현황의 연구에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제주해녀문화 관련 문서자료 일체와 해녀 공동체이다. 법령부터 해녀학교 수강생 모집에 관한 보도자료, 해녀 박물관 행사 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 자료의 조사는 문헌검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문헌 검토는 어촌계 및 현직 해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공무원, 제주해녀박물관 직원,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관계자 등, 제주해녀문화 정책·교육·전승 행위자들과의 면담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과제이기도 하다.

문헌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 지원, 복지, 등

112) 유기웅 외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28-44

해녀관련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관련 조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유산 등재 이전 해녀 정책의 방향성 및 해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전후로 하여 신설되었거나 변경 혹은 강화된 조례, 또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유네스코 유산제도가 제주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등재 이후 해녀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정책 현황 연구를 통해 면담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였다.

면담(Interview)은 선행된 문헌검토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된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의 형식<sup>113)</sup>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질문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답하였으며, 인터뷰 질문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개인적 경험들까지도 비교적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방법은 일대일 대면 인터뷰 방식을 지향하였으나, 시간적, 지역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유선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113) 유기웅 외 (2018) 의 책, p. 262 - 263.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프로토콜, 혹은 인터뷰 질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등 가변성을 일정 정도 허용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정리 및 구성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 제3절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인원과 소속은 아래의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6> 인터뷰 대상자

영역	소속		인원	인터뷰 방식
공적 영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2명	대면
	제주해녀박물관		1명	대면
	전직 공무원		1명	대면
민간 영역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		1명	유선
	어촌계	김녕	1명	대면
		종달	1명	유선
	해녀	해녀협회(법환)	1명	유선
		모슬포	1명	유선
		김녕	1명	대면

인터뷰 대상자는 제주해녀문화의 보호와 전승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공적·사적 주체로 한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박물관을 포함하는 공적 영역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 어촌계 및 현직 해녀와 같은 민간 영역으로 나뉘며, 해녀문화의 생명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역의 관련자들을 가능한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문화유산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신설된 제주해녀문화 관리 담당 부서로 문화와 복지를 모두 전담하는 해녀 정책 전담 부서이다. 기존 수산정책과와 해양산업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유산 등재 이후 일원화 되어 신설되었다. 제주해녀박물관의 경우, 해양수산국 소속 기관으로, 해녀

관련 학술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해녀문화유산과 신설 이전 해녀 정책을 담당하던 해양산업과와 수산정책과에서 해녀정책을 담당하던 전직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국가(도) 정책의 방향성과 해녀 정책에 대한 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해녀물질실태조사와 같은 학술연구, 해녀문화 체험 교육, 환경 정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서, 국립무형유산원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나 제주이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단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민간 영역에서의 해녀문화 보존 및 확산 활동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계 및 해녀의 경우, 해녀문화의 보호와 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승 공동체, 집단 및 개인으로서 정치가, 행정가들에 의해 시행되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승자 집단이자 무형문화의 실질적인 수행자이다.

인터뷰 대상자의 모집은 인터넷 검색 및 제주해녀문화 등재신청서에 소개된 102개의 어촌계 및 관할조직 정보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와 해녀박물관 직원은 사전 전화 연결 및 기관 방문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어촌계 및 해녀의 경우, 유네스코 제주해녀문화 등재신청서에 소개되어 있는 102개 어촌계 담당자(어촌계 및 어촌계장)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인터뷰 요청을 했다. 본 논문이 유네스코 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것이니만큼 고령의 현직 해녀들보다는 유네스코 제도나 해녀 관련 정책 용어와 친숙한 어촌계 혹은 해녀협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대면·유선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산 등재의 효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 2. 연구 자료의 수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혹은 유관 부서의 전·현직 공무원과 제주해녀박물관 직원과의 인터뷰는 녹취가 불가하여 면담 중 채록한 현장 노트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녀 관련 정책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이외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가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될 것을 고지하였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녹취를 진행하였다. 각 인터뷰에 사용된 소요 시간은 약 30분 ~ 1시간 30분이다.

## 제5장 유네스코 등재가 유산의 전승에 미친 영향

### 제1절 이차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 결과

#### 1. 제주해녀문화 관련 정책 변화

##### 1)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녀문화 전담부서 신설 및 해녀협회 출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해녀문화 유산과의 신설이다. 해녀문화유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산하부서로, 제주해녀문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이다. 수산정책과와 해양산업과로 이원화되어 문화와 복지가 나누어져 운영되던 등재 이전과 달리, 해녀문화유산과는 해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모두 담당하여 운영한다. 해녀축제, 해녀생업지원, 해녀문화보존업무, 해녀 네트워크 구축, 해녀의 전담 건립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114)</sup>

사단법인 제주해녀협회<sup>115)</sup> 또한 유네스코 등재 이후 2017년 4월 25일에 출범하였다. 2017년 기준 전직 해녀 5천 495명, 현직 해녀 4천 5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어촌계가 속한 수협별로 결성된 지부에서 선출된 2명의 이사와 협회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녀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해녀와의 교류, 해녀의 날 지정, 해녀축제, 해녀문화 홍보 등이 있으며, 해녀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 관련사업 및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다.<sup>116)</sup>

1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부서안내 참조  
<http://www.jeju.go.kr/group/part11/dept/org.htm#1000014004000>

115) 해녀협회의 창립은 토착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권장사항이다.

## 2) 해녀 관련 자치법규 강화 및 신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정된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자치법규는 총 일곱 개로, 조례 다섯 개와 시행규칙 두 개를 포함한다. 등재 전후로 제정된 해녀 정책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관련 조례 현황<sup>117)</sup>

제정일	조례
2006년 1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2007년 05월 09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08년 03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9년 11월 04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12년 0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2017년 06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7년 0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17년 6월 2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동년 7월 31일에 제정된 시행규칙, 두 가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sup>118)</sup> 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116) 김호천 (2017. 4. 23.), “제주해녀 9천 500명 협회 창립... 인류유산 해녀문화 세계화”, 「아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7/04/274055/>

117)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관련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eju.go.kr/open/law/current/current.htm>

11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해야 한다. 해녀어업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①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②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 정책
- ③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 ④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정책
- ⑤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②번의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 정책과 ④번의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정책의 경우, 등재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원 방법과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을 위한 지원금<sup>119)</sup>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 조건
고령 해녀 소득보전 수당	70대 현직 해녀	월 10만원	70세~7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액 지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달에 15일 이상 현직을 유지한 경우</li> <li>· 일할 계산: 현직을 유지한 날이 15일 미만일 경우</li> </ul>
	80대 이상의 현직 해녀	월 20만원	80세~은퇴 전까지	
고령 해녀 은퇴수당	80세 이상 은퇴 해녀	월 30만원	은퇴 일부터 36개월까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한 달에 고령해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내달부터 지급</li> <li>· 은퇴를 하였으나 다시 복귀하는 경우, 지급된 은퇴수당은</li> </ul>

11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 2019년 5월 8일 개정되었으며, 이 때 고령해녀 은퇴수당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수하고 고령해녀 수당 지급 제외 · 제주지역 외 거주자는 지급 제외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40세 미만 신규해녀	월 30만원	어촌계 가입일부터 36개월까지 (3년)	· 어촌계 최초 가입일이 속한 달은 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본다. · 최초 지급 후 60개월 이내에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급기준)에 대한 별지 참조

고령해녀 은퇴 및 소득보전수당과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지급된다. 제6조에 따르면, 고령해녀수당은 월 30만원 이내, 신규해녀 지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급 기준 및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다.

고령해녀소득보전수당의 경우 70대 이상 해녀와 80대 이상 현직 해녀들의 물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2018년에는 총 1722명의 해녀에게 25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는 무리한 물질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제도이다. 현직 고령해녀 중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자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 생업지원을 도모한다.

정착지원금이란 해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신규해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보전 및 어촌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하는 것으로, 만 40세 미만의 신규해녀에게 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된다.

2019년 5월 8일 개정 이전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의 경우 해녀학교 양성교육과정 이수자로 자격 요건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9년 개정 이후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가입 어촌계 현직해녀로부터 물질 능력을 인정받은 신규해녀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첫해에 여섯 명의 해녀에게 총 1,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도의 총 예산은 약 5,700만원이다.<sup>120)</sup>

### 3)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 수립(2017~2021)<sup>121)</sup>

지난 2009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서는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한 도지사로서 하여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녀문화발굴·조사·연구사업,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제주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sup>122)</sup>

2009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개의 5개년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전까지 시행된 5개년 계획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었다면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를 책임진다. 2017년부

120) 고령해녀 은퇴수당 제도 신설과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그리고 2018년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는 현지조사기간 중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제공 받은 정보이다.

121)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한 보도자료 외에 세부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여러 뉴스 보도 자료와 제주해녀박물관 및 도지사 공약을 기반으로 예산 및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현지조사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청 해녀문화유산과 방문을 통해, 제 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 ‘과거의 상부상조하는 해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동체 유지’를 도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해녀 가치 정립, 공동체 의식 부활, 해녀문화산업 육성,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의 실시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등이 제주해녀문화유산과의 역점추진과제이다. 5개년 계획이 2017년부터 2021년인지, 2018년부터 2022년부터인지도 뉴스에 따라 제각각이다.

12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참조.

터 2021년까지 해녀문화 전승과 해녀 소득 보전 사업 등 69개 사업에 총 1천 2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sup>123)</sup>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약 206억원의 예산을 소라 가격 보전, 해녀굿 지원, 제주해녀축제 개최, 박물관 운영, 해녀복 지원, 해녀 탈의장 운영, 고령 및 신규해녀 수당 지원 등 총 60개 사업에 지원하였다.<sup>124)</sup> 2019년에는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해녀문화 가치 제고를 위한 21개 사업<sup>125)</sup>에 총 66억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sup>126)</sup>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①해녀의 전당 건립, ②해녀문화 체험마을 조성, ③해녀문화 교류사업 지원 확대, ④제주해녀 안전과 건강 도모 방안 등을 위해 38,302백만원(국비 12,400, 도비 25,902)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sup>127)</sup>

#### 4)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활성화 사업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제다(2016년), 씨름·해녀·김치담그기(2017년)등 보유자 없는 종목을 지정함으로써 전승 다양화를 도모한 점을 꼽았다. 이와 동시에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고령화로 인한 전승

123) 박지호 (2017. 10. 29.) “인류유산 제주해녀문화 보존·전승 5개년 계획 수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9162600056?section=popup/print>

124)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 관련 정책’  
[www.jeu.go.kr/haenyeo/policy.htm?\\_layout=playout&\\_view=print](http://www.jeu.go.kr/haenyeo/policy.htm?_layout=playout&_view=print)

125) 2019년 해녀관련 21개 사업의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해녀 탈의장·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사업, 성계깍질 분할기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 (8억 8,900만원), 유색해녀복 지원, 해녀 진료비 지원 등 7개 사업(36억 8,800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신규해녀 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기반 시설 확충 (1억 7,200만원)이 있다.

126) 박가영 (2019. 02. 08.). “제주시, 해녀어업인 복지 증진에 66억 1,400만원 지원”, 「뉴스제주」.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238>

127) 도지사 공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약 실천 계획서 -> 약속 6, 지원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 -> 6-9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 확대  
<http://www.jeu.go.kr/dojisa/pledges/practice/business.htm>

여건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도 개선, 신규 종목 발굴 및 지정, 지원강화를 통해 문화유산의 전승과 관리를 위한 안정적·체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적 목표로는 ①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점진적 전환, ②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지원 확대, ③무형문화유산 지식 자원 축적, 등이 있다. 제주해녀문화, 혹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의 경우 지난 2016년 3월 발효된 무형문화재 신법에 영향을 받아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로서, 문화재청은 관련단체 사업 후원, 관리·활용 프로그램 공모, 종목 전담 활동기관 지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sup>128)</sup>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 문화재청은 보유자 없는 단체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활성화를 위한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녀’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고,<sup>129)</sup> 금일도창의예술학교(완도)의 ‘신나는 무례꾼 도전기 「나랑너랑」’과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제주)의 ‘해녀와 함께 하는 해녀문화 체험 캠프’가 선정되어 시행된 바 있다.<sup>130)</sup>

1964년, 종묘제례악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후 2016년 이전까지 모든 국가무형문화재는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종목만이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다. 1964년을 기준으로 약 56년 동안 지속된 보유자 중심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체계에서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 없는 종목인 ‘해녀’는 극히 새로운 무형문화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녀’의 활발한 전승을 위한 문화재청 차원에서 정책이나 사업은 아직까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해녀’의 활발한 보호와 전승을 위해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의 전승과 관련한 개념 정리가 하루 속히

128) 2018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https://www.cha.go.kr/download/2018cha\\_plan.pdf](https://www.cha.go.kr/download/2018cha_plan.pdf)

129) 한국문화재단,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 공모, 2018년 05월 02일  
<https://www.chf.or.kr/c6/sub2.jsp?brdType=R&bbIdx=105747>

130) 한국문화재단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06월 08일.  
<https://www.chf.or.kr/c6/sub2.jsp?brdType=R&bbIdx=105896>

이루어져, 해당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과 전승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131)

## 2. 제주해녀 복지 및 지원 사업

### 1)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진료비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관련 조례들 중 제일 오래된 것으로, 2014년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왔으며, 현재는 복권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 내 3,985명의 현직 해녀와 5,004명의 전직 해녀 모두가 대상이 되며, 수술 및 시술, 입원, 초음파 검사비, 약제비를 제외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sup>132)</sup> 2014년 3,339백만원이던 예산은, 2015년에 3,492백만원, 2016년 4,030백만원으로 매해 늘었으며,<sup>133)</sup> 현재는 연간 55억 정도가 복권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sup>134)</sup>

131) 본문에서는 2018년 5월에 시행된 해녀 전승 관련 공모사업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문화재청 업무계획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를 보면, 보유자(단체)가 없는 생활습관·전통지식분야에 대해 종목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할 것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녀문화의 전승주체인 해녀들은 전승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제다, 해녀, 삼베짜기 등과 같은 전통지식 및 기술 분야의 신규 종목 지정을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의 전승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해녀들이 문화재청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2019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https://www.cha.go.kr/download/2019cha\\_plan.pdf](https://www.cha.go.kr/download/2019cha_plan.pdf)

132) 제주지역 현지조사 중 한 해녀는 의료비에 대하여, 내원·외래 진료비 100%, MRI 등 특수 검사 비용은 50% 선에서 지원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133)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보, '복권사업이야기' <https://www.jeju.go.kr/finance/budget/lottery/lottery.htm>

134)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게시판, '[해녀 진료비 지원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현황 (2018.10월 기준)'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109&act=view&seq=1120730>

## 2) 여성 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sup>135)</sup>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여성어업인 대상 문화비 지원사업이다.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의욕을 고취시키고,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비 지원 사업이다. 여성어업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3만원의 문화·여가생활비가 지원된다. 문화, 스포츠, 여행 등 38개 업종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sup>136)</sup>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가 담당하고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 3) 해녀굿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부터 해녀의 신앙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해 해녀굿 의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제주도 내 31개의 어촌계에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2019년에는 그보다 4개소 증가한 35개 어촌계에 1억 7천의 예산이 지원되었다.<sup>137)</sup> 영등굿, 수신제, 해신제, 잠수굿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해녀굿은 해녀들이 한 해의 안전을 빌고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도에서 약 70%의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어촌계 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sup>138)</sup>

13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https://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download&seq=109922578&no=1>

136) 2018년 도입 당시 10만원였지만 현재는 금액이 확대되어 13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알림’

<http://www.seogwipo.go.kr/dj3.ncsfda.org/info/news/notice.htm?qType=title&q=%ED%96%89%EB%B3%B5%EB%B0%94%EC%9A%B0%EC%B2%98&act=view&seq=112365574>

137) 예산 지원 어촌계 개수와 예산 총액은 제주도청 해녀문화유산과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자료이다.

####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및 소라가격보전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어가 당 6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의 30%인 195천원은 마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계에 지급되고, 나머지 70%가 어업인 개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된다. 139)

제주도의 경우 2012년부터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시행되었고, 2016년에 읍면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2019년부터 동(洞)지역 해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다. 물질 도구나 문화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으로 해녀들의 월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이외의 제주해녀 소득보전지원사업으로는 소라가격보전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해녀의 주 수입원인 활소라는 이제껏 일본으로의 수출에 기대어 소비되고 있었으나, 엔저 현상과 경기 불황으로 일본이 활소라 수입량을 줄이면서 2018년에는 단가가 kg당 3,200원까지 떨어져 해녀 소득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수협에서 1,450원을 지원하여 kg당 약 4,500원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40)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부터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141)을 운용한다.

138) 정부 24, '2019년 지방보조금(제주해녀굿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 2018년 12월 26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21099>

13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공고 알림' 2019년 04월 16일.  
<http://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qType=title&q=%EC%A1%B0%EA%B1%B4%EB%B6%88%EB%A6%AC%EC%A7%80%EC%97%AD&act=view&seq=112700929>

140) 어촌계 직원 및 제주도청 해녀문화유산과와 확인한 사실이다. 어촌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산의 등재로 인하여 등재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은 부분들-소라가격/단가-가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본 기금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안정기금이며, 2022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 격리와 수협을 통한 매취사업,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제주도는 본 기금의 첫 사업으로 소라가격보전을 선정하였고, 해녀 3985명의 예상 생산량 1700t에 대하여 소라 1kg당 1000원을 지원하여 해녀의 월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에 나선다.<sup>142)</sup> 본 사업의 예산은 1,650백만원, 약 17억원정도이며, 이 외에도 국내 판로 개척, 레시피 개발, 효능연구 등을 통해 활소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홍보할 방법을 찾는 중에 있다. <sup>143)</sup> 2019년 5월부터는 총 어획 허용량의 8%가 군부대 급식 제공 품목으로 선정되어 약 145톤의 활소라가 군에 납품된다.<sup>144)</sup>

### 3. 제주해녀 교육 및 전승 프로그램

#### 1) 찾아가는 해녀공동체 프로그램

‘찾아가는 해녀공동체 프로그램’<sup>145)</sup>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141) 수산물 수급안정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 제정은 현재 논의중에 있다. 이에 관련 자료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142) 좌동철 (2019. 02. 14.). “제주도, 올해부터 수산물안정기금 본격 운영“, 「제주신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537>

143) 어촌계 방문 당시, 어촌계에서는 해녀 소득 보전과 활소라(뿔소라) 단가 하락을 종래와 같이 금전적 지원(kg당 1000원 지원 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소라에 대한 효능 연구, 홍보를 통한 국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더욱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과거 제주도 경제 발전을 위해 내륙으로의 시장 개척 대신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 것이 현재 내륙인들이 뿔소라를 모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청또한 국내시장 공략과 수출의존을 감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레시피 개발과 연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으므로 소라가격보전 등을 통한 해녀소득보전사업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 또한 수산물 수급안정기금은 제주해녀들뿐만 아니라 광어 등을 어획하는 전체 어업인들에게 적용되는 기금이다.

14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제주소라, 군장병의 선택으로 새로운 판로 확보’, 2019년 5월 14일,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176341>

145)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위탁교육사업, [http://jofpf.kr/pages.php?p=3\\_2\\_1\\_1](http://jofpf.kr/pages.php?p=3_2_1_1)



약 10개월 동안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급변하는 해녀공동체 내의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전승의 중심이 되는 해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양을 넓히는 교육을 해녀를 대상으로 펼치는 것이다. 146) 이를 통해 해녀의 역량을 강화하고 흥이 넘치는 해녀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해녀공동체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순회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면 광고와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신청한 어촌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 어촌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약 3시간여 동안 세 명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과정에는 기본 자긍심 고취 및 소양 교육, 해녀공동체 건강 교육, 마을어장 관리 교육, IT 교육,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이 포함된다. 2018년 6월 서귀포시 대포동 어촌계를 시작으로, 총 열 두 개 어촌계 소속 480명이 해당 교육을 받았다. 해녀 축제가 열리는 행정시 및 도심 지역과는 다르게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체감되지 않는 원거리의 어촌계가 주로 교육 신청을 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청 관계자는 2019년에도 해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안전조업 및 안전 교육, 해녀 공동체 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및 지역 공동체와 하나 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걸 맞는 의식개혁과 같은 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sup>147)</sup> 유네스코 등재를 기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가 아닌 무형문화의 전수자로서 또 하나의 상징이 된

146)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의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위탁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목적이 ‘해녀공동체 내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 해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양을 넓히는 교육이 필요하게 됨’ 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세계문화유산’이란 용어는 창덕궁(1997년 등재), 불국사(1995년 등재)와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적 문화유산을 말하는 것으로,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세계문화유산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해녀’라는 문구를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전승의 중심이 되는 해녀들’로 해석하였다.

147)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사업 보고서’  
[http://jofpf.kr/bbs/board.php?bo\\_table=5\\_1\\_1\\_1](http://jofpf.kr/bbs/board.php?bo_table=5_1_1_1)

해녀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2) 해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해녀학교는 총 두 곳으로, 제주시 한림읍 귀덕 2리에 위치한 ‘한수풀해녀학교’와 서귀포시 법환동에 위치한 ‘법환 좀녀마을 해녀학교’가 있다. 한수풀해녀학교의 경우 한림읍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로 2006년 제주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에 응모한 26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그 후 어촌체험관광차원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녀학교 및 해녀 체험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에 ‘한수풀해녀학교 직업양성반’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도 해녀문화보존 및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sup>148)</sup> 한수풀해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녀학교이다.

2019년 현재 취업반과 입문반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5월부터 8월까지 16주 동안 이론·실기 교육이 이뤄진다. 한수풀해녀학교는 잠수 이론 및 장비 설명, 잠수 호흡법 등과 같은 물질 기술과 더불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구급조치, 혹은 제주도 해녀정책이나 마을어업 및 어촌계 조직에 관련된 안전과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교육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테왁 만들거나 해녀노래와 같은 문화에 관련된 사항 또한 전수되고 있다. 2019년 현재, 12기수의 입문양성반 학생들과 3기의 취업양성반 학생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다. 매년 4월 교육생을 모집하며, 모집 인원은 취업양성과정 20명, 입문양성과정 50명이며, 해녀학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며 입학 경쟁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sup>149)</sup>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해

14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이후 제주시는 제주해녀문화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한수풀해녀학교에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다. 2017년 이전까지 단순한 수중체험 및 레저위주의 해녀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해녀 양성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제주도의 첫 해녀학교 한수풀은 이후 직업양성반을 만들어 해녀양성에 동참하게 되었다.

149) 제주 한수풀해녀학교 홈페이지

[http://jejuhaenyeo-school.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http://jejuhaenyeo-school.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

녀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물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체득하게 되며, 졸업 이후 해녀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sup>150)</sup> 다음 <표 9>는 입문 양성반과 취업 양성반의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표 9> 한수풀 해녀학교 교육 과정 비교

과정	입문 양성반	취업양성반
모집인원	50명	20명
	만 50세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여성 및 외국인 포함 여성 45명,</li> <li>◎도내외 거주 남성 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민 및 이주여성 포함</li> <li>◎해녀가 되고자 하는 여성</li> <li>◎주소지 어촌마을에 2년이상 거주한 자</li> <li>◎어촌계장 및 잠수회장이 추천한 자</li> </ul>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수풀해녀학교 재능기부자</li> <li>◎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해녀(잠수어업인)승계 예정인 여성</li> <li>◎도내 어촌계원 중 잠수회 가입 예정인 여성</li> <li>◎도내 어촌계원 가입 예정자로서 어촌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여성</li> <li>◎제주한수풀해녀학교 입문과정을 졸업하고 도내 어촌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여성</li> </ul>
교육기간	5월~8월 (16주)	
교육비	무료 (단, 시설 유지비 10만원, 슈트 외 개인장비 구입 및 학생회비 등 실비 자부담)	

한수풀해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범환 줌녀마을 해녀학교’는 해녀의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개교하였다. 한수풀과 마찬가지로 이론강좌, 문화체험강좌, 안전교육 및 실습강좌, 특별강좌 등 총 80시간의 교육이 5월부터 7월까지 8주

150) 오세미나 외 (2015). p.18

간 이뤄지며, 교육 이수 후 별도의 인턴과정 (9월~11월, 8주)이 준비되어 있다. 매해 30명 내외의 교육생만을 모집하고 있으며, 법환해녀학교 강의장 및 인근에 위치한 체험장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2019년 현재 5기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있다. 아래의 <표 10>은 법환해녀학교 모집인원, 대상, 교육기간, 교육비 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법환해녀학교 모집 관련 사항

명칭	법환해녀학교
모집인원	30명
교육기간	양성과정 : 5월-7월 (80시간, 8주) 실습과정 : 9월-11월 혹은 10월-12월 (8주)
대상	◎해녀를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60세 미만의 여성 ◎해녀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교육비	무료 (단, 시설 이용료 180,000원/주당 20,000원)

한수풀 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의 양성과정 모두 어촌계 가입 예정인 여성에게 입학시 가산점·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양성교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닌 만큼 두 곳 모두 수강료는 무료이나,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금액을 받고 있다. 다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체험 형식으로 출범했던 한수풀 해녀학교의 경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입문자 과정과 직업해녀양성과정 모두를 운영하고 있고, 법환 해녀학교의 경우 해녀가 되고자 희망하는 예비 해녀들을 위한 현장실습이 주가 되며, 해녀문화체험은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다.<sup>151)</sup>

### 3)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151) 법환 좀녀마을 해녀학교 홈페이지  
<http://www.thehaenyeo-school.com/experience/intro.do>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여러 민간단체들이 제주해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하는 사업, 기관·법인·단체의 자체 사업 등,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의 ‘찾아가는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위탁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나 문화재청과 같은 제주해녀문화 유관 공공기관들이 진행하는 공모 사업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집되고 있으나, 이 장에서는 해녀문화 홍보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학술연구, 교육훈련,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제주해녀문화의 공동체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본 법인의 설립 목적은 제주해녀의 물질 및 관련 문화를 유지·보전하는 것을 통해 해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해녀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를 내면화할 유·무형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해녀의 발전, 국위선양, 우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다.<sup>152)</sup> 법인 정관 제4조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1. 해녀문화 및 물질 체험, 해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컨설팅 및 운영
2. 전통해녀문화 및 물질을 보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3. 해녀문화 및 물질을 다룬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조사·연구 등의 사업
4. 해양·어촌체험관광 및 어촌문화사업의 기획·개발·조사·연구 등의 사업
5. 해녀물질 및 해녀문화에 대한 토론회 등 개최 및 정책 제안 등의 사업

152)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http://www.jejuhaenyeo.org/Corporation/Articles.aspx>

6. 해녀물질 및 해녀문화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
7. 현직해녀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인권증진 등의 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학술 사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은 ‘제주시 해녀물질실태조사’와 같은 연구사업, ‘공동체문화교육’, ‘제주해녀를 통한 제주이해교육프로그램’, ‘해녀물질체험’과 같은 교육사업, ‘제주해녀공동체문화 확산 캠페인: 혼디’와 ‘수중정화 활동: 숨비’ 등의 캠페인 및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법인에서 진행한 사업을 다음의 <표 11>에서 시기별로 정리해보았다.

<표 11>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

년도	사업명
2015	5월 제주시 해녀물질실태조사 실시
2016	3월 서귀포시 도시민어촌유지지원사업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
	7월 해안정화활동 ‘바당을 깨끗하게’ 행사
	9월 제9회 해녀 축제(교육, 홍보, 전시)
	11월 한수위 FPC 수산물 축제(해녀문화 홍보 전시)
	12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유네스코 등재기념 제주해녀문화 홍보 캠페인 (2016년 12월 - 2017년 3월)

2017	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전달식
	3월	국민선물 해녀장갑 전달, 수원리 수중정화 활동
	4월	문화재청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활동
	6월	시각장애인 대상 제주해녀물질체험 (제한수역)
	8월	시각장애인 대상 제주해녀물질체험 (개방수역), 제주시·서귀포시 수중정화활동
	9월	제10회 해녀축제(교육, 홍보, 캠페인, 체험)
	10월	FPC 수산물 대축제 (해녀문화 홍보, 전시)
	공공 기관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4 - 2017.12.)
		인성교육 및 제주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무형유산원 (2017.4 - 2017.12)
		제주해녀 공동체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2018		렛츠런재단 (2017.6-2017.8)
		렛츠런 재단과 함께 내는 숨소리 프로그램 운영
	10월	2018 제주해녀공동체문화체험단 *4회
2018	7월-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 (7월 -11월)
	11월	해녀와 함께하는 “해녀문화 체험캠프” *6차

출처: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홈페이지 법인 연혁 재구성

본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등재 이전인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3)</sup> ‘제주시 물질 실태 조사’나 ‘서귀포시 도시민어촌유지지원사업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같은 학술연구나 ‘바당을 깨끗하게’와 같은 수중정화사업, 수산물 축제에서의 해녀문화 홍보 등에 그치던 유네스코 등재 이전과 달리, 등재 이후 교육청이나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재청 등의 공공기관의 지원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본 단체가 보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도 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성교육 및 제주이해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sup>154)</sup>를

153) 혹자는 단체 (법인) 설립 시기가 2014년이고, 2015년과 2016년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의 수가 적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등재를 기점으로 교육청, 문화재청 등이 해녀관련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게 되면서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과 같은 단체가 공모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근거로 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과 ‘제주이해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법인은 ‘제주이해교육’<sup>155)</sup> 대상으로 선정되어, 제주의 유·무형적 자산, 이 경우 제주해녀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교육은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문화 및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실제 해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녀와 함께 하는 해녀문화 체험 캠프’는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 전승 활성화를 위해 공모한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sup>156)</sup> 단순이 레저 형태의 해녀 물질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캠프를 마련하여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까지도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동년 10월에는 해녀문화체험단과 지킴이단을 모집<sup>157)</sup>하여 문화

1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http://www.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206011002000&boardId=BBS\\_0000050&dataSid=1227224](http://www.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206011002000&boardId=BBS_0000050&dataSid=1227224)

1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15년 8월 13일에 제정되었다.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제주이해교육’이란 ‘제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 사회의 문화, 지리, 환경 등을 통하여 지역 생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제주 지역 사회를 중심 교재로 삼는 교육 활동’을 가리킨다. 제주의 유·무형적 자산은 돌, 바람, 신화, 생활 등을 포함한 제주 지역의 자연과 전통문화 자원을 말한다. 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제주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17년에는 4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본 법인은 2017년과 2018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9년 현재는 마감되었다. 지방 보조금 관련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m.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702001000000&boardId=BBS\\_0000030&dataSid=1307566](http://m.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702001000000&boardId=BBS_0000030&dataSid=1307566)

156) ‘청소년을 위한 진로·여가 해녀문화 체험 캠프’가 6번에 걸쳐 진행되었고, ‘교강사를 위한 해녀문화 체험캠프’가 한 차례 진행되었다. 체험 캠프의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 제주해녀문화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jejuhaenyeo.org/Community/NoticeView.aspx?idx=17&page=1&sg=&sw=>

157) 2018 제주해녀공동체문화체험단 사업은 해녀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지킴이 40명과 체험단 40명 (회별 10명) 총 80명을 선발하여 진행되었다. 2018년 10월 13일, 14일, 20일, 21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문화재청 내교장문화재지킴이로 신청하였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 ‘지킴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체험단’으로 구분된다. 관련 사항은 제주해녀문화연구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EC%82%AC%EB%8B%A8%EB%B2%95%EC%9D%B8-%EC%A0%9C%EC%A3%BC%ED%95%B4%EB%85%80%EB%AC%B8%ED%99%94%EC%97%B0%EA%B5%AC%EC%9B%90-15758>



재로서의 해녀공동체문화, 해녀물질, 해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의 활동사례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 늘어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해 교육, 관광(체험),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무형문화재·무형유산으로서의 제주해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 4. 제주해녀 홍보 및 콘텐츠 활용

##### 1) 해녀문화홍보마켓사업

해녀문화홍보마켓사업은 해녀문화의 홍보와 물질 외 해녀 소득 증대 방안의 개발을 위하여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유네스코 등재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해녀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해녀의 고령화와 감소로 인하여 해녀탈의장과 공동작업장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소라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해녀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자, 시설 활용과 소득 증대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2015년에 추진되었던 ‘해녀마켓사업’이 문화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해녀회 및 어촌계 사업의지 부재로 미운영 되어, ‘해녀문화홍보마켓’은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18년 12월 31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종달어촌계에서 정식으로 개장하였다.

해녀문화 홍보마켓은 관광객들에게 해녀문화를 체험하고 해녀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장, 해녀복 기념사진, 해녀채취 영상, 해녀 작품 전시, 해녀 공연 등 여러 문화 활동을 통한 해녀문화 홍보와 수산물 직판장 운영을

---

62866055204/

통한 활소라의 내수축진을 유발코자 한다. 158)

제주도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9년부터 도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녀문화홍보마켓 운영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해녀문화 체험과 수산물 판매 여건을 갖추고 해녀문화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한 어촌계(해녀회)에게 100백만원의 시설지원비와 50백만원의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159) 해당 사업을 유치한 종달어촌계는 어촌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해녀가 정착해서 조업하는 과정을 연출한 정기 공연과 소라, 문어 등 해녀 채취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에 힘쓰고 있다. 160)

## 2) 해녀문화우수콘텐츠 지원 사업

제주해녀를 브랜드로 한 문화상품 개발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해녀문화 산업의 육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의 주요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2조 3항에 따르면 해녀문화산업이란 해녀 및 해녀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상품을 기획, 제작 및 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 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말하며, 문화콘텐츠 개발,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 그 외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sup>161)</sup>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가 해녀문화 관련 문화예술창작 및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해녀문화 우수

1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녀문화 홍보마켓 시범운영 공모 계획 알림’ 2018년 03월 24일.  
<http://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08394165>

159)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간행물, ‘2019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31일.  
<https://www.jeju.go.kr/news/online/ebook.htm> p.g.66.

160) 종달 어촌계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 종달 어촌계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16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참조.

예술창작 지원 사업」과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지원 사업」이 있다. 또한 「해녀문화우수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공모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민 대상 문화상품 개발 공모전이다.

첫째로 「해녀문화 우수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국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과 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단체의 경우 최소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경력이 단체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인은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단체의 경우 최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sup>162)</sup> 예술 장르에 제한은 없으며, 2019년에는 20개의 사업에 2억 2천 4백만 원이 지원되었다.<sup>163)</sup>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지원 사업」은 해녀문화를 소재로 한 공연이나 전시 및 퍼블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녀가 주체가 되는 단체 혹은 도민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도민 중심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예술단체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며, 신청하고자 하는 생활문화동호회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해녀로 구성된 생활문화동호회는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생활문화동호회의 경우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녀’를 주제로 한 전시나 공연, ‘해녀문화’확산을 위한 해녀 체험 프로그램이나 해녀 문화 강좌 운영과 같은 퍼블릭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이 된다. <sup>164)</sup>

162) 제주특별자치도, ‘2019 해녀문화우수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 알림’ 2019년 5월 2일, [https://www.jeju.go.kr/news/news/news.htm?jsessionid=AJiSfO1qABLAGOrnTjdQ7Dc7U7xeCwP3N0IOfanaN04fQEnhUBBgfl8g3rj7usyi.was2\\_servlet\\_engine1?act=view&seq=1174776](https://www.jeju.go.kr/news/news/news.htm?jsessionid=AJiSfO1qABLAGOrnTjdQ7Dc7U7xeCwP3N0IOfanaN04fQEnhUBBgfl8g3rj7usyi.was2_servlet_engine1?act=view&seq=1174776) 2019.06.08. 참조

163) 제주문화예술재단, ‘[결과] 2019년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사업 심의 결과 안내’ 2019년 6월 7일, [https://www.jfac.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bject&g\\_keyword=%BF%EC%BC%F6+%BF%B9%BC%FA+%C3%A2%C0%DB+%C1%F6%BF%F8%BB%E7%BE%F7&g\\_site=NEW&frame=default2018&eb\\_seq=282](https://www.jfac.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bject&g_keyword=%BF%EC%BC%F6+%BF%B9%BC%FA+%C3%A2%C0%DB+%C1%F6%BF%F8%BB%E7%BE%F7&g_site=NEW&frame=default2018&eb_seq=282) 2019.06.08. 참조

164) 제주문화예술재단, ‘[공고] 2018년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지원 사업 공모’ 2018년 4월 20일, [https://telecentro.co.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https://telecentro.co.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

마지막으로 「해녀문화우수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공모전」은 제주해녀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한 캐릭터상품, 예술상품, 생활용품 등 문화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작품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 특선 7건, 입선 10건까지 총 25점의 작품을 선정하며, 총 상금은 2,400만원이다. 수상작은 해녀박물관에서 향후 1년 동안 전시되며, 상품으로 유통할 시에는 해녀박물관 기념품 판매점에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sup>165)</sup> 2018년에는 3단 접이식 양·우산 ‘바당아이’, 블루투스 스피커·동작 LED ‘아시와 테왁’ 등 총 23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번 장에서 언급한 세 건의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지원 및 발굴사업은 모두 201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전문 예술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녀문화 우수 예술창작 지원 사업」과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해녀문화우수콘텐츠 문화상품 발굴지원공모전」은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 3) 해녀공연단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 활동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해녀문화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공연에 해녀가 직접 출연하는 해녀공연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의 현직 해녀가 참여하는 해녀공연단이며, 해외 홍보활동 및 해외공관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의 참가경비를 지원한다. 2019년에는 유네스코 등재 홍보 해녀활동 지원에 102백만원,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에 100백만원, 일본 아마 문화 교류 및 아마 서밋 참가에 5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sup>166)</sup>

bject&g\_keyword=%BF%EC%BC%F6%C4%DC%C5%D9%C3%F7+%BF%EE%BF%B5%C1%F6%BF%F8+%B  
B%E7%BE%F7&g\_site=NEW&frame=default2018&eb\_seq=168 2019.06.08. 참조

165) 제주특별자치도, 「[정례] ‘2019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 2019년 4월 25일.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173562>

166) ‘2019 이렇게 달라집니다’, p. 67.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등재 이전부터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주해녀문화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 예로, 2018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 동안 대평 어촌계 해녀공연단 열여섯 명이 독일 로렐라이 지역을 방문하여 국제예술 교류 활동에 참가하였다. 해녀들은 독일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휘닉스 파운데이션 (Phoenix Foundation)과의 합동공연 및 단독공연을 통해 ‘해녀 출가 노래’와 ‘멜 후리기 노래’ 등을 선보이는 한편, 홍보책자와 엽서 등을 배포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sup>167)</sup> 이어 ‘글로벌해녀문화마당’이 동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지에서 열렸다. 연극 ‘이기풍과 제주해녀’, 해녀노래와 제주민요, 해녀 사진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제주해녀의 삶에 대하여 홍보하였다.<sup>168)</sup>

2019년에는 ‘제주해녀문화전’이 스톡홀름 동아시아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한·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주 스웨덴 한국대사관 주도로 열린 본 행사는 5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4개월여 동안 계속된다. 제주해녀 사진전 및 제주해녀 소품이 전시되며, 2019년 8월에 열리는 한국문화축제에는 제주해녀합창단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sup>169)</sup>

이처럼 제주해녀문화 홍보를 위한 국외 행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현직 해녀들의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 활동 지원 확대 및 예산 편성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1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독일해녀문화홍보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2018년 11월 19일, <http://www.council.jeu.kr/activity/international.do?field=subject&word=%ED%95%B4%EB%85%80&sdate=&edate=&act=view&seq=266118>

16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녀문화 해외홍보를 위한 글로벌 해녀문화마당 참가 결과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http://www.council.jeu.kr/activity/international.do?\\_layout=print&page=2&act=view&seq=267384](http://www.council.jeu.kr/activity/international.do?_layout=print&page=2&act=view&seq=267384)

169) 임청하, “스웨덴에 닿은 ‘숨비소리’”, 『제주신문』, 2019년 05월 21일. <http://www.jejuex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19>

## 제2절 인터뷰 결과

앞서 4장에서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제주해녀문화 전승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질문 세 가지를 설정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제주도청, 해녀박물관 및 여러 어촌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제주해녀의 자긍심 고취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도 있었으나, 동일 사항에 대해서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었다.

**연구 문제 1: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유산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신설·강화되었는가?**

유산 등재 후속 조치를 비롯하여 제주해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해녀문화유산과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섯 가지의 주요 변화 사항을 추려낼 수 있었다.

- ① ‘해녀문화유산과’ 발족
- ②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 수립
- ③ 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
- ④ 해녀굿 지원 정책
- ⑤ 신규해녀초기정착지원금

## ⑥ 제주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조사

우선, ‘해녀문화유산과’의 발족으로, 기존에 해양수산물과와 수산정책과로 이원화 되어있던 해녀업무가 일원화 되면서 해녀의 생업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을 유산 등재 이후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목표로 수립되었던 ‘제1차 제주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한 5개년 계획’에 이어서 해녀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와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은 현재 해녀문화유산과의 역점 과제로 보인다. 2018년도에 시작한 해녀굿 지원 정책과 신규해녀초기 정착지원금을 비롯한 신규해녀관련 인센티브의 지속적인 개발은 사라지고 있는 해녀신앙을 보호하고 신규 해녀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일부 제공해주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제주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조사를 위한 예산 2,000만원도 신규 편성되어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또한 시작되었다.<sup>170)</sup>

다만, 제주도의 해녀와 해녀문화에 대한 노력은 등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이며, 해녀 진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전승, 교육, 문화콘텐츠 개발, 관광, 홍보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지방자치법령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조례나 정책 등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 예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공공재 관리 차원에서 등재 이전부터 실시해왔던 어초 투하 및 치패 방류 등의 사업을 들었다.

해녀 및 해녀문화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들은 제주해녀박물관 방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해녀박물관의 학예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등재 이후 지역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특별교육을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점과 해

170)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주해녀들의 항일운동을 언급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녀박물관 소장 교육 자료들을 배포했음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 현직 해녀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해녀 양성에 대한 책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해녀가 가진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등재 이전부터 해녀박물관에서는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해 왔으며, 연간 방문객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유산의 등재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주해녀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 증대 또는 해녀박물관 방문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어촌계 및 해녀 공동체에서는 소라가격보전과 해녀협회의 출범을 큰 변화로 꼽았다.

“[소라는] 해녀들의 주 종목인데, 그게 생활의 터전에 종목이에요. 근디, 그게 일본으로 전량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수출을 이렇게 막지는 않아도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추세라서 소라 값이 한 2,000-3,000원에 머물렀어요, 키로 당. 그런데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도청에서 1,000원을 보전해주고, 각 수협에서 이제 형평성에 맞게 해서 5,000원, 이렇게 돈이 제한됐어요.” (해녀)

“그러니까 4,500원 단가 맞을 때는 물론 도에서던, 수협에서던 보조를 안 해줬지만, 단가가 3,100원이니까 도에서 지원, 1450원 이렇게 하고... (중략) 어쨌든 보조금으로 인해서 입찰 단가가 아니고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단가는 맞춰지고 있죠. 도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해녀유산 등재 되면서 하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거겠죠.” (어촌계)

또한 해녀 협회의 경우 초대 해녀협회장 강애심을 중심으로 제주도 내 102개 어촌계 중 여성 어촌계장 16명이 중심이 되어 발족하였다. 해녀협회 발족 후, 기존 도청의 주도와 수협의 협조로 진행되던 해녀축제를 해녀협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면서 실제 해녀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sup>171)</sup>

171) 김은정(2018)에 따르면 제주해녀축제는 2007년 ‘탐라문화제’ 내 부대행사로 시작하여, 3회째인 2010년에 독립



“또 하나가 변화된 거는 해녀 축제가 이제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 수협에서 협조하는 걸로 했어요. 지금도 그거는 보조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등재된 이후에 해녀협회가 주도해가지고 진행하는 거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이사님들이 나와서 앞에 가서 해녀 헌장이라든가 낭독하면서 무대에 주요 역할을 하는 거죠.” (해녀)

다만, 2018년부터 새로이 지원되고 있는 해녀굿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도 300만원 달라, 저기도 500만원 달라 하는 거예요. 서른 몇 군데가 생겨났어요. 없던 데도 우리도 한다 뭐 한다 하면은.... (중략) ... 이 해녀를 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토속신앙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되요. 이거 없으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이것들을.” (어촌계)

인터뷰 결과 해녀굿 지원의 경우 어촌계마다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로부터 해녀굿의 전통을 잘 지켜 온 어촌계의 경우, 지원정책의 신설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해녀굿을 연행하지 않은 어촌계까지도 지원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을만의 전통을 가지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해녀들의 신념에 의해서 행해지는 해녀굿인지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

하였고, 등재 직후인 2017년에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민속공연, 거리퍼레이드로 국한되었던 프로그램 또한 유네스코 문화 공연, 해녀굿, 대상군 해녀 금덕이 공연, 해녀 물질 재연 등, 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인터뷰 당시 인터뷰 대상자는 해녀들이 축제에 참여한 이후 축제가 좀 더 풍요로워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해녀 협회가 발족한 2017년에 개최된 제10회 해녀 축제부터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아, 해녀의 참여가 해녀축제 콘텐츠 다양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은정 (2018), ‘해양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 - ‘제주해녀축제’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연구 문제 2: 유산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의 실질적 행사자인 전승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가?

인터뷰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매해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산 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해녀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해녀 지원 및 복지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이 있다.

“어떤 혜택을 주냐 그러면 해녀들만은 이제 병원비 지원을 해줍니다...(중략)... 내원했을 경우에는 100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MRI나 CT는 50프로 지원이 됩니다.” (해녀)

의료비 지원의 경우 유네스코 등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조례 제정 초기 잠수병 치료에만 지원됐던 혜택이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잠수병의 치료와 같이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는 잠수복 등의 물질 도구를 들 수 있다. 잠수옷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제공되던 것이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1년에 한 번씩 지원되고 있었다.<sup>172)</sup>

“2년에 한 번 고무 옷이랑 이렇게 해드리다가 1년에 한 번으로...(중략) 고무 옷 외에 오리발이랑 물속에 들어가는 쓰는 것 있잖아요. 눈. 눈이라고도 하고 수경이라고도 해요. 그것도 보조가 나왔고....” (해녀)

172) 김상미·황경수(2012)의 해녀 공공서비스 실태와 욕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전액 지원되던 잠수진료비가 일부 의약품 구입비 본인 부담으로 축소되었고, 잠수복 지원 또한 행정체제 개편(4개 행정구역에서 2개로)으로 인해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0년, 500명의 해녀가 활동하던 하도리의 경우도 또한 1년에 스무 벌, 전체 수요의 5퍼센트도 되지 않는 잠수복을 지원 받은 바 있다. 김상미·황경수(2012), 해녀의 공공복지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0), p. 4560.

다만, 활발하게 물질에 임하는 해녀와 그렇지 않은 해녀에 대하여 동일한 지원이 나오는 것이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금 보조 오는 것도 물질 1년에 4-5일 하시는 분도 똑같이 보조가 들어와요. 고무옷을. 고무 옷이나 모든 게. 형평성에 맞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무옷도 깊은 데서 하니까 막 모자르거든요. 수압으로 눌러갖고. 자꾸 이러는데 좀 많이 하시는 분은 좀 많이 주고, 좀 적게 하시는 분은 2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주고 해야...” (해녀)

인터뷰 결과 제주해녀 관련 지원 정책 중 제일 대표적이었던 것은 고령해녀의 수익보전과 70세 미만 해녀에 대한 문화 바우처 지원이었다.

“고령 수단. 긍정적으로 70대 이상 그게 달라졌구요... (중략) ... 어쨌든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달라졌다고 보이잖아요. 더 할 수 있는 것은 복지, 그러니까 문화생활 누리라고. 그것도 70세 미만의 문화카드가 10만원 정도.” (어촌계)

다만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의 경우, 면담에 응한 모든 어촌계에 정착한 신규 해녀가 없었던 관계로 신규 해녀 수당과 관련한 지원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많은 해녀공동체 및 어촌계에서 신규해녀 정착 시 어촌계에 부여되는 신규해녀 인센티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근데 행정에서는 각 어촌계마다, 지금 제주도에 102개 어촌계가 있거든요? 어촌계마다 이 신규해녀들을 유입을 시키면 좀 특별한 혜택을 그 어촌계에다 줘요. 지원을 해 줘요. 뭐 종패를, 소라, 해삼이라던지, 전복 종패 같은 거라도 좀 더 지원이 되고...” (해녀)

고령해녀 수당과 물질도구 지원은 해녀와 어촌계가 체감하고 있는 유산 등재 이

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다. 현장에서 만난 해녀와 어촌계 모두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유네스코나 조례와 같이 행정·정책적인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해녀 또한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연구 문제 3: 유산의 생명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 전승자를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전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 제주지역에서 신규해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귀덕 2리 어촌계와 법환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 해녀학교이다. (사) 제주해녀문화연구회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녀문화체험프로그램에 해녀물질 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 해녀를 양성하는 곳은 제주 내에서 두 곳의 해녀학교가 유일하다. 잠수호흡법을 비롯한 물질기술과 안전조업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물질에 필요한 여러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물질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하였다.

“자맥질 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건 같죠. 근데 물 시간이 다르고, 물 조류 방향이 다르고, 그곳의 지형이 다른데, 전혀 단지 자맥질 해서 속에 들어가는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배워 오면 배웠다고 해서, 그곳에서 똑같이 뭐 소라가 있고, 해산물이 있고, 해조류가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몇 메타 못 들어가요. 현실적인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한 자맥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

해녀의 물질은 해녀 개개인이 가입한 어촌계의 마을어장에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해녀의 물질 기술이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 상군 해녀로부터 하군 해녀에게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각 마을의 바다 지형과 해산물의 위치 등 실제 현장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지식이 전수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현재에는 해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잠수기술을 배운 뒤 제주도 각지 어촌계로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 바다 밭 상황을 배우는 데에는 추가적인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

“최소한도로 2년에서 3년을 바다 어느 곳을 가드라도 바다의 경험이 없으면 사정을 아는 동안까지는 절대 하루에 돈 만원도 벌기 힘들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2년 3년, 심지어는 5년까지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최소한의 수입이 만들 수 있는데...” (어촌계)

해녀학교의 물질 교육과정은 길어야 16주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촌계 관계자에 의하면,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기본적인 물질 기술 정도는 습득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현장에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5년 정도의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신규해녀들이 바다 밭 사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과거 불턱에서 이루어졌던 물질기술 전수와 같이 선배 해녀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절실하다. 하지만, 많은 어촌계의 해녀들이 신규해녀 유입을 거부하고 있어 신규해녀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지역에 해녀 분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시는 새 젊고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 위치가 적어진다. 그렇잖아요, 이제 새 동서가 들어오면, 우리 시집 왔는데 새 동서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새 동서에게 집중한다는 이런 강박관념, 이런 관념이예요.... (중략) 실력이, 해녀질을 못해서가 아니라, 해녀질을 못해서 양성이 안 되는 건 아니예요.” (해녀)

“지금 실제로 88명의 해녀가 있는데, 실제로 물질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50명이 들어가서 솔직히 4-5만원이라도 이렇게 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와서 하면 몇천 원이라도 빼앗아 간다. 두 개 잡을 거 네가 하나 잡아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해녀)

인터뷰에 따르면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해녀들이 신규해녀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개발 등의 이유로 바다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젊고 기량이 좋은 해녀들의 등장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킬까 염려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어촌계 가입을 위해서 어촌계·해녀회 자산의 1/n을 가입비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도에서 어촌계 가입비(50만원 가량)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큰 어촌계의 경우 가입비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강애심 해녀협회장에 의하면,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어촌계에서 2년 동안 인턴 해녀로 활동한 제자 두 명 또한 정착하고자 하는 마을의 어촌계장으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가입비를 낼 것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 모진 일을, 저도 해 봤지만, 저도 지금 해녀지만, 진짜 하루에 막말로 물에 들어가면 요, 소변을 몇 번쯤 보시는 줄 아세요? 거의 한 4-50번, 3-40번 이렇게 오줌이 나와요. 얼마나 몸이 못 견뎠으면 이런 현상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요즘 고생도 안 하신 애기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하겠어요? 대우도 좋고, 지역에서 우대도 좋고, 이렇게 해야 애네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돈 가져 오라, 오면은 너네들 이쪽 저쪽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막 해버리면 할 사람 앞으로 뭐 점점 없을 수밖에...” (해녀)

이와 더불어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해녀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진정성 문제도 존재하였다:

“[어촌계 가입비가] 규모에 맞게끔 뭐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내면서 과연 와서 수입도 안 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와서 해녀 하겠어요? 안 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와서 하라고 해도 지금 소득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촌에 살고 뭐 하고 배웠거나 학술적으로 이런 책 쓰거나, 이런 책 요즘, 여

보세요. 셀 수 없어요. 만들어져요.” (어촌계)

“거기서 해녀 수료증을 받아서... 근데 그거 실질적인 제주도 분들이 없잖아요. 육지 분들이 오셔서 그 해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료증을 받으면, 바로 이게 옛날에는 해녀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한, 자식들 어쨌든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벗어났죠. 지금 해녀를 배우는 이수과정에서는 그냥 이제 자기 취미 활동.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이게 하다가 또 안 해버리고, 하다가 안 해버리고. 이제 이런 언론에 해녀문화유산되면서 뭐, 해들 지원하는 게 많아질 거다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도 보여지겠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촌계)

해녀의 물질기술은 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다. 해녀학교 졸업 이후에도 마을의 선배 해녀들을 통해 물질 기술을 전수 받고, 지속적으로 바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해녀 문화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신규해녀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어촌계와 해녀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신규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기까지 적어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또한 주창하였다.

인터뷰 결과 여러 해녀 공동체 및 어촌계가 신규해녀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신규해녀양성방안에 대해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직해녀와의 네트워크 형성, 해녀 양성 바다 지정 등의 전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일대일 내지는 현직해녀 5명, 신규해녀 1명. 이것이 조편성이 되어서 같이 나가고 현직 해녀분들도 소득이 지금보단 조금 향상되게끔 하고 새로운 해녀도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낮게 이 사람을 교육을 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새로운 해녀도 쫓아가서 똑같이 작업을 하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하더라도 금방 잡지는 못해요. 그럼 일정부분 수맞이 형식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중략) ... 이 분들이

10kg 잡을 때, 1kg도 못 잡을 때, 이 분들이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몇 개씩이라도. 그러면은 도와준 것도 보상을 해주고...” (어촌계)

현직해녀와의 네트워크 형성 방안은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물질에 임하는 물질 기술을 보유한 현직 해녀가 직접 신규해녀를 교육하는 것으로써, 물질 기술 전수로 인하여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하는 방안이다.

“지금 계원이 4-5명이 있는 어촌계가 있는데, 앞으로 2-3년이면 이 분들도 막 거의 못한다는, 해녀질을 못할 수도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촌계 바다가 비면, 자연스럽게 이 바다를 해녀 양성시키는 바다로 이렇게 이관해가지고 도청이나 아니면 해녀 협회나 이런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데를 이제 양성하는...(중략)... 해녀협회라거나 각 어촌계들 공모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교육시키는 지도자를 넣어가지고 양성했으면 나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는 생각도 해요.” (해녀)

현지조사차 제주도를 방문할 당시, 해녀 수 감소나 바다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물질을 하지 않는 어촌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녕이나 법환과 같은 대규모 어촌계도 있지만, 사무실조차 없는 소규모 어촌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해녀 양성 바다’의 지정 방안은 고령화와 어촌계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는 바다 밭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해녀문화의 전수 시스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촌계에 대한 신규해녀정착인센티브개발과 신규해녀에 대한 어촌계 정착지원금 정책, 신규해녀 소득보전수당 등을 들어 신규해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해녀문화유산은 아직도 제주도 지역 내에 수천 명의 전승자가 남아있고, 20개의 무형유산종목 중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과 전승이 제일 잘 되고 있는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



음을 강조하였다. 앞서 문헌연구를 진행할 때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확대된 무형문화재 범주에 속하는 제다, 해녀, 씨름 등과 같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는 종목의 지정을 두고 전승 다양화를 도모하는 것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성과로써 평가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과 신규해녀 양성을 바라보는 어촌계와 행정의 입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 연구문제 4: 해당 유산의 등재가 해녀문화 인식 및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가?

해녀가 무형문화유산적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엽,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유산제도 등장 이전까지 해녀는 제주지역에서 산소 공급 장치의 사용 없이 맨몸으로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제·노동인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초기의 해녀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진료비나 물질도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의 보호, 증진 및 전승보다는 여성 어업인에 대한 생업 지원 및 도민복지 차원에 좀 더 가까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중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등장하면서 당시 국내에서 무형문화재를 관장하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개념보다 광의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해녀의 자연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물질 방식 및 기술을 비롯하여 해녀공동체 문화가 주목받으며 학자들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때부터 제주도는 여성 어업인 생업 집단이었던 해녀와 해녀공동체를 해녀문화를 전승하는 전승공동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생업 지원에서 문화의 보호 및 전승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관련 정책 수립 및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다만, 생업적 요소에서 무형문화적 요소로써 해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 것

은 해녀문화의 전승 공동체인 해녀들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의 공무원이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면담 결과, 해녀 공동체 및 어촌계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야 스스로를 단순 어업인이 아닌 무형문화유산 전승 주체로써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등재 되니까 이 분들 유네스코가 뭐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유네스코라는데가 뭐지? ... (중략) ... 이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 아마도 좋은 것일 것이다. 우리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올 것 아닌가.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문화재가 됐잖아요. 인간문화재가 돼서 저도 참 해녀 하기를 잘했구나.” (해녀)

이어 유산의 등재가 해녀에 대한 마을 주민 및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해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 또한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행해지는 물질 작업이 고되고 천한 노동이라고 인식되었던 과거와 달리, 무형문화의 전승활동으로 인식되면서 해녀 자아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유산 등재 후 가장 큰 변화는 해녀라는 그분들에 대한 지위 향상....(중략) ... 이전보단 관심을 많이 주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어촌계)

“해녀분들은 솔직히 옛날에는 제주도가 공장도 없고 어디 직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여자 분들이 특별히 돈 벌이 할 게 없었잖아요. 밭, 아니면 바다. ... (중략) ... 근데 그 참, 그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해녀하는 것을 어디 나가서 나는 해녀다 라고 당당히 이렇게 내세우질 못했거든요. 근데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이분들은 저도 해녀의 한 사람이지만 이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부끄러움이 당당해짐으로 바뀌었어요. 자긍심이 생기고, 결코 부끄러운 건 아니구나...” (해녀)

해녀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지위가 향상되면서, 부끄럽고 숨겨야만 했던 해녀라는 직업은 유산 등재 이후 무형문화재로써 미래세대에 전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유네스코 등재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산 등재 이후 70대 이상의 고령 해녀들을 중심으로 자신들로 하여금 제주해녀문화가 전승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인들에게 직업으로써의 해녀를 추천하겠다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sup>173)</sup> 자신의 자식에게조차 물질은커녕 수영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가 해녀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등재 이전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임이 아닐 수 없다.<sup>174)</sup>

“(나이) 60이니까 젊은 편에 속하는데, 내가 후에, 차후에 10년 후면 내 나이도 70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이 문화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들고...” (해녀)

미래세대로 전승되어야 할 해녀문화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유산의 핵심 가치를 문화가 포함된 명칭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소라 채취 양이나 잠수 깊이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공동체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해녀 자체에 대한 의미도 많이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공동입어와 공동물질이라는 해녀공동체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부상조하는 해녀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개인주의화 된 한국사회의 미래 공동체 유지 모델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제2차 5개년 계획은 공동체 유지를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173) 유원희 외, (2018), “제주해녀의 자아인식,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등재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36(1) :89-96

174) Choe Sang-Hun (2014, March 29). Hardy Divers in Korea Strait, ‘Sea Women’ Are Dwindling.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14/03/30/world/asia/hardy-divers-in-korea-strait-sea-women-are-dwindling.html>

제주해녀문화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 관계자 역시 전승되어야 할 유산의 핵심 가치에 대해 물질이 아닌 해녀문화라고 응답하였다. 해당 법인이 말하는 해녀문화의 핵심 전승 가치는 공존으로, 숨이 허락하는 선에서 자신의 양 손에 쥘 수 있는 만큼만 채집하며 자원의 고갈을 막는 것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고, 할망바다<sup>175)</sup>의 정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존과 같은 가치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같은 기관이 이를 재해석하고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녀문화 전승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승을 할 건데, 뭘 전승을 할 거냐고 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물질을 계속 전승한다고? 자, 그거는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직업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생기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거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중략)... [할망바다와 같은] 그런 가치관들이나 삶에 대한 태도들은 쉽게 형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공존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승을 한다면 그런 가치들을 전승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핵심 가치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재해석이 되어 된다 이거죠. 옛날에는 그랬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다른 모습을 가져갈 거냐...” (민간단체)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자긍심 고취와 지위 향상, 관심 증대로 부정적이었던 자아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전승되어야 할 가치에 대한 기관 및 단체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물질을 통해 채취한 해산물에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했던 공유시대의 해녀문화(과거)와 자본주의적 경쟁 시대(현재)의 해녀문화가 달라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옛날에는 그 물건을 잡으면 돈이 안 됐어요. 자기 식용으로 먹었지. 집안에 가정에 반찬 해

175) 예로부터 해녀들은 고령이거나 물질에 익숙하지 않아 수확량이 적은 고령해녀와 젊은 해녀들을 위해 바다 밭의 일부를 ‘할망바다’(할망바당) 혹은 ‘애기바다’(애기바당)으로 지정하여 배려해왔다.

먹고, 조금의 돈이 생겼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안 됐어요. 경쟁심이 없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바다에 같이, 너희들도 내 뒤에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잡아다 먹고 하자, 같이 공유하는 시대였었고, 지금은 경쟁 시대잖아요. 지금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해녀)

물질 기량이 떨어진 고령의 해녀들에게 양보했던 할망바당이나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애기바당을 통한 배려의 문화, 채취량이 많은 상군 해녀가 남몰래 하군해녀의 빈 망사리를 채워주던 계석 문화<sup>176)</sup>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쟁시대의 도래로 옛일이 되었다. 지금도 공동물질<sup>177)</sup>이 존재하긴 하지만, 102개 어촌계 중에서 활발하게 공동물질에 임하는 어촌계는 김녕과 조천 어촌계 두 곳 뿐이다.

더구나 현행되고 있는 정책이 공동체 강화가 아닌 개별 해녀 지원의 성격이 더 강하고, 공동체 중심의 전승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sup>178)</sup>, 물질적 지원에 익숙해져 공동체 문화를 잃어가는 해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제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해녀가 표발이에요, 표발. 해녀를 놓치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녀들에게 엄청난 의료비와 작업복, 작업 비용, 그 다음에 소라 소매가, 안정된 소매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왔죠. 복지라는 어떤 미명 하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까 애초에 내가 지키고 싶었던 해녀 문화, 함께 어울려 사는 해녀 문화는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민간단체)

해녀문화 가치의 성공적인 유지와 전승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176) 노대원 (2017). 현대 서사 문화 속의 제주해녀. 한국언어문학, (103): 235-263

177) 현재 제주지역에서 공동물질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김녕과 조천 두 곳이다. 김녕 어촌계의 경우, 우뚝가 사리 공동채취 수익금 20프로를 선차감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에 100명의 현직 해녀가 있는데 70명은 연로하여 물질하지 않고, 나머지 30명만 참여를 했다고 하여도, 공동물질 수익금 20프로를 선차감하여 100명의 해녀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고, 그 외 80퍼센트는 물질에 참여한 30명의 해녀가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천의 경우, 바다 밭을 네 개의 바당으로 나누어 세 바당에서 나온 수익금을 마을의 모든 해녀가 나눠가진다.

178) 함한희 (2017).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해녀공동체의 도전과 과제 - ‘유산화 (heritization)’ 과정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회』.2(2), 7-25.

주기만 하는 정책은 공동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지원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유산 등재 이후 해녀들은 어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외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 혹은 인간문화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개별 해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좋지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배려와 공존의 해녀문화 가치를 다시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제6장 제주해녀문화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방안

### 제1절 제주해녀문화 전승의 문제점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후 해녀 및 해녀문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해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해녀문화유산과가 신설되었으며, 해녀문화 홍보는 물론 해녀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 관련 사업 및 교육에 힘쓰는 해녀협회 또한 발족하였다. 도에서는 연간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해녀문화의 보존과 해녀에 대한 복지 및 지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녀 진료비 지원, 잠수복 지원, 소라가격보전,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소득보전수당, 해녀굿 지원, 세계농업유산등재 등, 2018년을 기준으로 약 60여개에 달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유산 등재 이전부터 제주해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해왔던 제주도이기에 이러한 정책이 유네스코 등재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존 정책이 강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차원에서 해녀와 해녀문화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련의 정책들이 해녀공동체 유지 및 미래세대로의 전승 강화에 미치는 영향과 생명력 보장에 필수적인 신규해녀양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해녀에게 지원하는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제도, 어촌계에 부여하는 신규해녀 인센티브(종패 지원, 사업공모 시 우선권 부여, 등)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신규해녀의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주도 내에 수천 명의 해녀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물질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녀문화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

지만 인터뷰 결과 평균적으로 해마다 150 여명의 해녀가 은퇴를 하고 있는 반면, 채 15명이 되지 않은 수의 신규해녀가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제주도 내에서 신규해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어촌계 차원에서 운영하는 해녀학교 단 두 곳뿐이다. 이마저도 8주에서 16주 정도의 짧은 교육기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 바다 밭에서 물질작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에 따른 생계유지 곤란으로 기술을 체득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또한 수당이나 정착지원금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으로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동체가 아닌 개별 해녀 지원의 성격이 더 강하고, 자칫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해녀 및 공동체 자체의 자생력을 잃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외에도 폐쇄적인 해녀공동체와 높은 어촌계 가입 문턱은 신규해녀들이 마을에 정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대부분의 해녀들이 신체적 기량이 좋은 젊은 해녀들의 유입으로 인해 본인의 경제적 수입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규해녀가입을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어촌계 규모에 따라 800만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신규 해녀로 하여금 접근성을 낮추게 하였다. 신규해녀양성에 대한 행정에서의 낮은 관심과 더불어 해녀공동체 자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해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해녀문화유산과는 지방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양수산과 산하 부서이다. 도민 복지의 관점에서 제주해녀를 바라보고, 각종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생업 밀착형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 문화재의 보호와 활용,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청과 같은 수준의 지원과 집중을 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제주



해녀문화와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해녀를 미래세대로 전승하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문화재청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민간단체 위탁 형식으로 해녀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해녀의 전승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추가 사업은 없다. 또한 해녀 공동체 및 여러 연구자들이 해녀 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해녀와 같은 지정 범주 외에 있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는 종목을 지정함으로써 전승 다양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해녀가 속한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범주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발효 시점인 2016년 3월부터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는 종목의 전승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설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해녀들은 해녀 종목의 당사자이지만,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가 없어 전승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지 못해 전승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제2절 제주해녀문화 전승 방안

본 연구자는 유산 등재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해녀문화관련 사업 및 지원 정책의 수와는 별개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승 강화 및 유산의 생명력 보장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외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사업적 측면에서의 유산 전승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국외 무형문화유산보호 모범사례

#### 1) 인도네시아 바틱문화 교육 사례

인도네시아의 페칼롱간의 바틱 박물관과 공동수행하는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기술전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바틱 무형문화유산교육 및 훈련(이하 ‘바틱문화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에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 모범사례목록에 등재되었다. 바틱(Batik)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수공예 방염 직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법·상징·문화가 인도네시아인의 삶에 녹아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바틱(Indonesian Batik)이라는 명칭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는 유산이다.

바틱문화는 과거 양호한 상태(healthy condition)에 놓여 있었지만 문화적 가치와 전통기술을 미래세대로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세계화, 현대화, 기술의 발달 등의 이유로 바틱 문화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줄어들어 따라 쇠퇴하거나 소멸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구전되던 전수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고,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바틱 문화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확실한 전수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바틱문화의

전수는 교육부 산하조직의 주관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9년간의 의무교육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바틱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기술전문학교의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 문화적 가치, 전통기술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바틱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페칼롱간 시의 각급 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와 바틱 공동체로 하여금 바틱 문화 전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기술의 교육에 바틱 박물관의 직원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바틱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바틱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바틱 박물관의 직원들은 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 수공예를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프로그램이 발달함에 따라 시설을 갖춘 교육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를 위한 교육 (training for trainers)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바틱문화 전문가와 기능보유자들이 교육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기능보유자들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로서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후 몇몇의 바틱 생산자(Batik producers)들 또한 이러한 구전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바틱 교육에 활용된 교육 자료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맞춰 조정되며, 교육이 끝난 후 박물관에서 단계별 평가 시험이 치러진다. 뿐만 아니라, 바틱 문화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 기술은 현지 교육 내용(local content)으로 다양한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에 삽입되기도 하였다. 바틱에 대한 기사를 언어 수업에 활용하거나, 생물학 및 화학 시간에 바틱 제작 시 사용되는 천연 색소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이다.<sup>179)</sup>

179) UNESCO, Education and training in Indonesian Batik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elementary, junior, senior, vocational school and polytechnic students, in collaboration with the Batik Museum in Pekalongan, <https://ich.unesco.org/en/BSP/education-and-training-in-indonesian-batik-intangible-cultural-heritage-for-elementary-junior-senior-vocational-school-and-polytechnic-students-in-collaboration-with-the-batik-museum-in-pekalongan-00318>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및 지도자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참가자 모두가 본 교육이 바틱 문화유산과 전통 수공예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폐칼롱간 시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바틱문화 교육프로그램은 세대간 구전되어 내려오던 전통적인 전승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다른 무형문화유산 종목 전승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2) 차세대 푸젠 성 인형극 예능보유자의 양성 전략 사례

차세대 푸젠 성 인형극 예능보유자의 양성 전략은 지난 2012년에 등재된 중국의 모범사례이다. 푸젠(Fujian) 인형극은 중국의 공연 예술 중 하나로 줄 인형과 손 인형 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독특한 기술, 다양한 극과 음악의 레퍼토리가 발달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현지 공동체에게 사랑받아 왔지만, 생활방식 및 경제기반의 변화와 지구화가 전승의 퇴락을 불러일으켰으며, 젊은 세대들이 정교화된 공연 기술 체득에 소요되는 길고 고된 훈련을 기피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인형극 전승 공동체는 관련협회 및 대표 보유자와 함께 후세대 연행자 양성 및 인형극 보호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푸젠성 무형유산보호센터 산하의 다양한 단체들이 정규교육 및 견습 제도, 인형극단 육성 등 유산의 전승과 개발을 위한 여러 활동에 임하고 있다. 푸젠성 무형유산보호센터는 인재 육성, 관련 지식 학습,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푸젠 인형극 관련 교재 및 대중 서적을 편찬하고, 관련 영상·음원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능보유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증 획득 지원 제공, 공연장·양성기관·전시 시설의 신설,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국제간 협력개발,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하여 인형극 공연과 인형공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핵심은 후세대 예능보유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후

세대 실연자에 초점을 맞춘 공교육 및 비공식 교육과정이 마련되었고, 200명의 실연자들이 예술대학 및 학교에서 전문 연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 정부의 인형극단은 이들 실연자들을 극단의 견습생으로 영입하였으며, 이들 견습생은 전통 인형극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을 통한 연수 및 견습생 양성에 그치지 않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형극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여 인형극 감상을 위한 공동체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보유자의 지휘 아래 있는 열 개의 인형극단이 매해 1,000여 번에 이르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어린 학생 및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학교 및 유치원의 지원을 받아 인형극 학내 공연 100회와 같은 행사 또한 개최하고 있다. 일련의 활동들은 인형극의 대중화와 현지 공동체 내 인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인형극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도 급증하였다.

해당 계획은 국가교육시설과 자원을 활용한 후세대 실연자 육성 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전문 기관, 정부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고안하고 이행한 프로그램으로써, 50여 개의 공동체와 학교, 전문 인형극단은 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sup>180)</sup>

### 3) 해외 무형문화유산보호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는 비정규적 교육을 통해 전승되던 전통 수공예 기술, 또는 예능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 전승을 꾀하고<sup>181)</sup>, 박물관이나 무형유산보

180)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2012-2013’, p. 14-19

181) 교육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존중 및 증진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4조는 당사국에게 무형유산의 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14조에 의하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구체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그리고 비정규적 지식 전수 수단이 포함된다. 무형유산의 교육은 학교를 통한 정규 교육(공식적 교육)과 비정규 교육(비공식적 교육)이 있는데,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 이어지는 체계화·조직화 된 학습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문 및 일반 교양 중심 학습, 전

호센터 산하 인형극단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며, 공동체와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유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후세대 양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사례의 경우, 2006년 바틱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바틱 문화 전수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되었고, 그 후 박물관 및 박물관 직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 및 시행된 사례이다. 박물관 및 교육청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제주도에 이미 제주해녀박물관이 있다는 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 교육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한 제주이해교육이 위탁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충분히 실현가능성 있는 전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산 등재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해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해녀문화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 및 교육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를 통한 법률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 비용 또한 박물관이나 교육 자료가 없는 나라와 비교할 때 크지 않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기능보유자들을 유산의 교육자로 참여시켜 제주의 해녀들이 교육자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는 특히 고령으로 물질이 어려워진 해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사례의 경우 국가 교육 시설과 자원을 이용하여 실연자 육성 증진을 꾀했다는 특징이 있다. 푸젠성 무형유산보호센터는 후세대 실연자 양성에 있어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하였다. 보유자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거나,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국제 간 협력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인 조치 외에 양성 기

---

공과목 프로그램, 또는 직업훈련이 정규 교육에 해당한다. 반면 비정규 교육의 경우 학교 시스템 밖에서 실시되는 독립적인 활동을 말한다. 무형문화의 전승은 전통적으로 비정규 교육의 형식으로, 주로 기능 보유자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교육 및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한국의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인도네시아의 상가(sanggar), 유럽의 아틀리에(atelier)는 대표적인 비정규 무형문화유산 전승 공간이다.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2012),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p. 260-263

관이나 전시실을 설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급 환경 개선에 공헌한 바 있다. 단순히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성기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시설을 설립하는 등, 공연·훈련·확산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실연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표 전승자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대중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통해서 인형극의 전승 및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sup>182)</sup>

본 연구자는 제주도특별자치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해녀문화교육프로그램은 없으며, 한수풀과 범환 해녀학교 또한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만든 양성기관임을 확인한 바 있다. 시설과 제도를 갖춘 제주도가 중국의 푸젠성 무형유산보호센터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승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후세대 해녀 양성에 참여한다면, 제주해녀문화 또한 푸젠성 인형극의 후세대 실연자 양성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해녀문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정부 공립 양성기관을 통해 공식적·비공식적 해녀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견습 제도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뒤, 개별 해녀가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는 형식이 아닌 영입 및 할당의 형태로 신규 해녀를 각 어촌계에 배정하는 형식을 사용한다면, 신규해녀에게 가해지는 가입비 부담이 해소되고, 마을어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기존의 해녀들보다 비교적 연령대가 낮아, 인터넷 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삼아 해녀문화홍보 주체로 삼는 방법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배정하거나 어촌계에서 영입한 신규해녀가 일반 대중 및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업이나 마을어장 및 환경 관리, 마을어장지킴이 등의 공공복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면,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이 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sup>183)</sup>

182) 제주도청이 어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두 곳의 해녀학교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 2.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제도 개선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보유자 및 보유 단체를 중심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전승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대상별 월 지급금액<sup>184)</sup>

지급대상	전수교육지원금 (월정액)	장례 및 입원 보조금	기타
보유자	월 1,317,000원	장례: 1,000,000원 입원: 500,000원	◎취약종목 전수장학생: 월 263,000원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월 1,000,000원 ◎전승취약종목
전수교육조교	월 660,000원	장례: 500,000원 입원: 300,000원	
보유단체	월 3,500,000원	없음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월 5,500,000원	없음	
보유자 및 보유 단체 없는 종목	지원사항 없음	없음	

2016년 무형문화재 신법 발효로 인한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로 ‘해녀’와 같이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는 종목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전승지원금 등의 보조는 종래와 같이 보유자, 전수조교, 보유단체,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183) 마을어장 및 환경 관리, 어장 지킴이, 해녀문화홍보 등의 공공복리활동은 신규해녀정착방안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어촌계 관계자 및 해녀에 의해 제시된 방안이다. 또한 해녀는 기본적으로 반농반어의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마을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발이 없기 때문에 기존 해녀들보다 소득을 보전하기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공공복리활동참여 이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신규해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84) 문화재청, “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알림”, 2018년 01월 29일,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jsessionid=d1cMJbqQfDZtgn2fJDy7bdcXkOeEmECVwVAkeGJPZGzY5aLPMJ8Kihw3nU5g36xs.new-was\\_servlet\\_engine1?id=18697&no=25357&bbzId=newpublic&pageId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jsessionid=d1cMJbqQfDZtgn2fJDy7bdcXkOeEmECVwVAkeGJPZGzY5aLPMJ8Kihw3nU5g36xs.new-was_servlet_engine1?id=18697&no=25357&bbzId=newpublic&pageId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특성상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이나 장례 및 입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약종목 전수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월 장학금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해녀수당은 다음의 이유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고령해녀수당과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선 고령해녀수당의 경우 70세 이상의 해녀들만이 그 대상이 된다. 60대 이하 해녀들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 바우처가 지급되긴 하지만, 수당과 같이 소득보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다.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의 경우, 만 40대 미만의 신규해녀를 대상으로 어촌계 가입 3년 후까지 매달 30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 또한 대상자의 나이를 40대 미만으로 2-30대의 젊은 세대에 한정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연령집단이 존재하게 된다.

2018년 기준, 제주도 지역 내에서 현직해녀로 활동 중인 해녀의 수는 3,985명이다. 이 중, 해녀수당 지급 대상인 70대 이상 해녀의 수는 2,386명으로 전체 현직 해녀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1,178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60대 해녀가 잇고 있었다. 신규해녀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40대 미만 해녀의 수는 총 17명으로, 이마저도 어촌계 가입 이후 3년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13> 제주도 현직해녀 현황 (2018년 기준, 2017년 말 추정)

지역	계	30대 미만	3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3,985	1	16	47	357	1,178	1,707	679
제주시	2,292	0	10	29	246	689	918	400
서귀포시	1,693	1	6	18	111	489	789	279

둘째,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과 비교할 때, 10만원에서 30만원에 불과한 해녀수당은 해녀들이 생업에 대한 우려 없이 전승활동에 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보유자의 경우 약 130여만 원의 전승지원금이,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66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보유 단체의 경우 350만원을, 보유자 없는 보유 단체의 경우는 55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 받는다. 물론 제주도 전 지역의 마을어장에 분포되어 있는 해녀의 상황과, 특히 개인 종목의 경우 보유자의 수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매달 고작 10만원에서 20만원의 소득보전 지원을 하면서 문화의 보전 및 전수교육까지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에 대한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우선, 문화재청 차원에서 보유자 및 보유 단체가 없는 종목의 전승자들에 대한 전승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녀 종목은 김장문화나 제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전승되는 종목이 아니라, 전승 집단인 해녀와 해녀 공동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기존의 무형문화재 종목처럼 오랜 시간의 훈련을 요한다. 아리랑처럼 한국인이 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 해녀학교 혹은 공동체를 통해 전수활동에 참여해야만 습득하고 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전승지원금 지급 방안이 마련은 필수적이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행되어 보유자를 지정할 수 없다면, 해녀학교, 해녀박물관 혹은 해녀문화 체험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전수활동에 참여하였거나, 마을에 전입한 신규해녀의 교육을 맡는 등, 전승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해녀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사료된다.<sup>185)</sup>

이와 더불어 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수당제도는 70세 이상의 고

185) 면담 결과, 많은 해녀들이 신규해녀교육에 참여한 시간만큼 해산물을 잡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으므로, 신규해녀교육에 참여한 해녀를 중심으로 전수교육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소득 저하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령 해녀, 혹은 어촌계 가입 3년 이내의 40대 미만 해녀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4-50대 중장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70대 해녀들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은퇴 연령이 없으며, 본인의 신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언제까지도 물질에 임할 수 있는 해녀 물질 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규해녀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을 굳이 40대 미만의 해녀로 제한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현행되고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존 정책에서 배제된 4-50대 해녀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제7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뜻한다. 본 연구자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해당 유산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전승 활동이 유산의 생명력 유지 및 강화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해녀문화를 전승하는 해녀의 수는 고령화와 산업 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해마다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해녀의 양성은 해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해녀문화는 1962년 제정 이후부터 국내의 유·무형 문화재 보호의 기반이 되어 준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법상 무형문화재로 보호받지 못했던 유산이다. 예비목록에 이름을 올려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영향을 받아 범주가 확장된 무형문화재 신법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분류되어 지정되었으며, 이때부터 제주 지역 내에서 나잠어로 방식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전문 어업인일 뿐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에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제주해녀문화는 유산 등재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유산 등재 후속 조치 및 해녀문화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해녀협회가 발족되었다. 해녀 진료비 지원, 잠수복 지원,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당 신설, 해녀굿 지원을 통한 해녀 신앙 보전 사업, 소라가격보전, 세계농업유산 등재 등 약 60여 개의 사업에 연간 2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등재 이전부터 해녀 복지,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산업 진흥 등 여러 분야를 관장하

는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조례 및 정책의 시행이 유네스코 등재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존 정책이 강화되고 제주도 내 해녀의 지위가 상승한 것은 분명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및 사업상의 변화 외에도 해녀를 대상으로 해녀 공동체 내의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술연구, 교육훈련,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여러 방면에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잠수탈의장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해녀문화를 체험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 대중에게 해녀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해녀문화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 개발이나 해녀 공연단 지원을 통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마을 단위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던 해녀문화 전승과 신규 해녀 육성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해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학교는 입문과정과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해녀학교를 졸업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잠수하는 법에서부터 물질 도구에 대한 지식, 실습 등, 물질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해녀학교 교육의 효과에 대한 각 어촌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며, 높은 어촌계 가입비와 선배 해녀의 거부로 인해 신규해녀가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현직 해녀가 중심이 되는 현장 친화적 전수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모범사례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의 바틱 문화 교육 사례와 중국의 푸젠성 인형극 실연자 양성 전략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교육 및 정규교육을 통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후세대 전승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사례 모두 교육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켰으며, 교육청과 지역의 무형유산보호센터가 적극적으로 전승 활동을 지원 및 참여하였다. 이미 제주해녀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해녀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고 현지교육내용으로 정규교육과정에 제주해녀문화가 포함된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 무형유산보호에 있어서도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해녀문화의 유산 등재 이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 문화재청 또한 유산의 국내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다만, 현행의 전승지원정책이 보유자, 보유단체, 보유자 없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및 보유단체 없는 종목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해녀는 문화재청의 전승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 및 신규해녀수당은 수당의 지급 대상을 70세 이상 혹은 40대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그룹이 존재하게 된다.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신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유네스코 등재가 해당 유산의 전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화, 산업 구조 변동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해녀와 같이 전승자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분야의 전승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해녀 관련 연구가 해녀문화의 문화인류학적·민속학적 가치를 입증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서 그친 것과 달리, 유네스코 등재 이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한국이 공동등재 3건을 포함한 스무 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다(多) 등재국가라는 점에서 제주해녀문화 하나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국내 혹은 국외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후 전승 현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제주해녀문화 사례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해녀 및 해녀문화 전승 주체를 해녀 공동체와 어촌계로 설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유네스코 등재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명확하게 탐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나 조례와 같은 용어와 친숙한 어촌계장 및 어촌계 직원, 해녀협회장 및 현직 해녀인 어촌계장(혹은 여성 어업인 회장) 등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뷰 대상을 축소하여, 흔히 질적 연구의 한계로 지적받는 객관성을 보완하는 한편, 수집 자료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이 이면에는 등재 이후 워낙 많은 연구자들의 방문으로 지친 다수의 해녀 공동체와 어촌계가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 대상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에는 일반 해녀들을 대상으로 신규해녀의 양성과 정착, 해녀유산의 전승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문헌

-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2012), 정규, 비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P.258-268.
- 고은솔, 정상철 (2018).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산경영. **예술경영연구**, 45, P.318.
- 고창훈 (2005). 제주해녀의 문명사적 가치와 해녀문화의 계승. **한국토목학회 학술대회**, P.3276-3286.
- 김선기 (2010). 제주해녀의 일본 진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일어문논집**, 14(0), P.189-208.
- 김상미·황경수 (2012), 해녀의 공공복지서비스 실태와 욕구 비교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0), P.4560.
- 김은정 (2018). ‘해양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 - ‘제주해녀축제’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 김지현 (2017).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사업의 현황 -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회**, P.153-178.
- 노대원 (2017). 현대 서사 문화 속의 제주해녀. **한국언어문학**, (103): 235-263.
- 박찬식 (2004).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P.135-164.
- 송준 (2008).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의 보존(保存)과 활용(活用)에 대한 소고(小考) - 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0), P.217-241.
- 오세미나 외 (2015). 제주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노력들, 무형유산포럼 편, **무형유산연구**, 제1권: 249-270.
- 유기웅 외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4).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 2012-2013**, P.14-19.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8), **세계시민, 세계유산을 품다 -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P.49-50
- 유철인 (2018). 제주해녀의 유산화: 무형문화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제4회 한중인문학 포럼**.
- 이성훈 (2014). **해녀연구총서. 2 (민속학)**, 학고방.
- 좌혜경 (2002).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36, P.229-270.
- 좌혜경 (2006). 해녀 노래에 나타난 노동기능과 정서,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P.137-166.
- 최영화·민경선 (2017),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9(2): 29-54.
- 최종호 (2016). 무형문화재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상생과 공존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23), P.195-214.
- 함한희 (2017). 유네스코 등재 이후 제주해녀공동체의 도전과 과제 - ‘유산화 (heritization)’ 과정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회**. 2(2), P.7-25.

## 해외논문

- Blake, Janet.(2006). “Commentary on the UNESCO 2003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e of Art and Law.
- Kim, Jihon and SungtaeNam (2016), “National Response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Case of the 2003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and the New Korean Legisl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33(2):35-59, p. 42.

## 보도자료

고미 (2012년 7월 19일). 직업군 아닌 문화로 새 기준 마련 서둘러야, 5부 ‘잠녀’에서 미래를 읽다 - 제주잠녀·문화 정체성,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904>

김호천 (2017년 4월 23일). 제주해녀 9천 500명 협회 창립... 인류유산 해녀문화 세계화. 아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7/04/274055/>

박가영 (2019년 02월 08일). 제주시, 해녀어업인 복지 증진에 66억 1400만원 지원, 뉴스제주.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238>

박지호 (2017년 10월 29). “인류유산 제주해녀문화 보존·전승 5개년 계획 수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9162600056?section=popup/print>

임재영 (2018년 11월 9일). [드론으로 본 제주 비경] 바닷속을 자유롭게 수영하는 해녀 할머니,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81108/92795915/1>

임청하 (2019년 5월 21일). 스웨덴에 닿은 ‘숨비소리’, 제주신문.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19>

좌동철 (2019년 2월 14일). 제주도, 올해부터 수산물안정기금 본격 운영, 제주신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1537>

황경근 (2011년 2월 7일). 제주해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208014003>

## 웹사이트

‘국가무형문화재 제 72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39007](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39007)

10000#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해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ZZ01](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127ZZ01)

320000

‘국가중요어업유산’

<http://www.xn--o39a10ay63bzwepcu5dc2ar7i.kr/kifhs/0001/0003;jsessionid=5878F1A4B9963B>

E40294F25F95DF2C98/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 목록

[https://ich.unesco.org/en/lists?text=&type\[\]=00003&multinational=3&display1=inscriptionID](https://ich.unesco.org/en/lists?text=&type[]=00003&multinational=3&display1=inscriptionID)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12120](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jeju&dataType=01&contents_id=GC00712120)

무형문화유산 [http://heritage.unesco.or.kr/ich/ich\\_list/ich\\_list\\_intro/](http://heritage.unesco.or.kr/ich/ich_list/ich_list_intro/)

문화재청, “2018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알람”, 2018년 01월 29일

[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jsessionid=d1cMJbqQfDZtgn2fJDy7bdcXkOeEmECVwVAkeGJPZGzY5aLPMJ8Kihw3nU5g36xs.new-was\\_servlet\\_engine1?id=18697&no=25357&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https://www.cha.go.kr/multiBbz/selectMultiBbzView.do;jsessionid=d1cMJbqQfDZtgn2fJDy7bdcXkOeEmECVwVAkeGJPZGzY5aLPMJ8Kihw3nU5g36xs.new-was_servlet_engine1?id=18697&no=25357&bbzId=newpublic&pageIndex=1&pageUnit=10&strWhere=&searchWrd=&sdate=&edate=&mn=NS_01_01)

문화재청, 연도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통계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earch/statistics-02.jsp&mn=NS\\_03\\_07\\_01](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search/statistics-02.jsp&mn=NS_03_07_01)

문화재청,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255&sectionId=b\\_sec\\_1&mn=NS\\_01\\_02](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255&sectionId=b_sec_1&mn=NS_01_02)

문화재청. 지정문화재 총괄(표) 참조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cultural\\_info/cultureTotal\\_ccrebasi\\_kor.jsp&](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cultural_info/cultureTotal_ccrebasi_kor.jsp&)

mn=NS\_03\_07\_0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2&s\\_ctcd=50&ccbaKdcd=22&ccbaAsno=00010000&ccbaCtcd=50&ccbaCpno=2223900010000&ccbaLcto=00&culPageNo=1&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2#](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2&s_ctcd=50&ccbaKdcd=22&ccbaAsno=00010000&ccbaCtcd=50&ccbaCpno=2223900010000&ccbaLcto=00&culPageNo=1&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 도구’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4&s\\_ctcd=50&ccbaKdcd=24&ccbaAsno=00100000&ccbaCtcd=50&ccbaCpno=2443900100000&ccbaLcto=00&culPageNo=9&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4](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_kdcd=24&s_ctcd=50&ccbaKdcd=24&ccbaAsno=00100000&ccbaCtcd=50&ccbaCpno=2443900100000&ccbaLcto=00&culPageNo=9&header=region&pageNo=5_2_2_0&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RegionList.do&assetname=24)

법환 좀녀마을 해녀학교 홈페이지

<http://www.thehaenyeo-school.com/experience/intro.do>

‘보전(保全)’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33925ec718b4010908bbfdd413f780f>

‘보호(保護)’,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812d4905ffd45ec830a7e30d94ce0eb>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http://www.jejuhaenyeo.org/Corporation/Articles.aspx>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사업 보고서’

[http://jofpf.kr/bbs/board.php?bo\\_table=5\\_1\\_1\\_1](http://jofpf.kr/bbs/board.php?bo_table=5_1_1_1)

사단법인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위탁교육사업, [http://jofpf.kr/pages.php?p=3\\_2\\_1\\_1](http://jofpf.kr/pages.php?p=3_2_1_1)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목록 <http://heritage.unesco.or.kr/>

‘인간문화재제도(Living Human Treasure System)’

<https://ich.unesco.org/en/living-human-treasures>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

<https://ich.unesco.org/en/proclamation-of-masterpieces-00103>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43532>

정부 24, ‘2019년 지방보조금(제주해녀굿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21099>

제주문화예술재단, ‘[공고] 2018년 해녀문화 우수콘텐츠 운영지원 사업 공모’

[https://telecentro.co.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bject&g\\_keyword=%BF%EC%BC%F6%C4%DC%C5%D9%C3%F7+%BF%EE%BF%B5%C1%F6%BF%F8+%BB%E7%BE%F7&g\\_site=NEW&frame=default2018&eb\\_seq=168](https://telecentro.co.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bject&g_keyword=%BF%EC%BC%F6%C4%DC%C5%D9%C3%F7+%BF%EE%BF%B5%C1%F6%BF%F8+%BB%E7%BE%F7&g_site=NEW&frame=default2018&eb_seq=168)

제주문화예술재단, ‘[결과] 2019년 해녀문화 우수 예술 창작 지원사업 심의 결과 안내’ 2019년 6월 7일,

[https://www.jfac.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bject&g\\_keyword=%BF%EC%BC%F6+%BF%B9%BC%FA+%C3%A2%C0%DB+%C1%F6%BF%F8%BB%E7%BE%F7&g\\_site=NEW&frame=default2018&eb\\_seq=282](https://www.jfac.kr/contents/index.php?job=detail&ebcf_id=business_notice&page=1&mid=0502&column=subject&g_keyword=%BF%EC%BC%F6+%BF%B9%BC%FA+%C3%A2%C0%DB+%C1%F6%BF%F8%BB%E7%BE%F7&g_site=NEW&frame=default2018&eb_seq=282)

제주 한수풀해녀학교 홈페이지

[http://jejuhaenyeo-school.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http://jejuhaenyeo-school.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4)

제주특별자치도, ‘[정례] ‘2019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개최’ 2019년 4월 25일,

<https://www.je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173562>

제주특별자치도, ‘2019 해녀문화우수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 알림’ 2019년 5월 2일,

[https://www.jeu.go.kr/news/news/news.htm;jsessionid=AJiSfO1qABLAGOrnTjdQ7Dc7U7xeCwP3N0IOfanaN04fQEnhUBBgfl8g3rj7usyi.was2\\_servlet\\_engine1?act=view&seq=1174776](https://www.jeu.go.kr/news/news/news.htm;jsessionid=AJiSfO1qABLAGOrnTjdQ7Dc7U7xeCwP3N0IOfanaN04fQEnhUBBgfl8g3rj7usyi.was2_servlet_engine1?act=view&seq=1174776)

6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분과 ‘해녀문화유산과’,

<https://www.jeu.go.kr/join/evaluation/part9/08.htm?act=index&category=21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공고 알림’ 2019년 4월 16일.

<http://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qType=title&q=%EC%A1%B0%EA%B1%B4%EB%B6%88%EB%A6%AC%EC%A7%80%EC%97%AD&act=view&seq=1127009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알림’

<http://www.seogwipo.go.kr.dj3.ncsfda.org/info/news/notice.htm?qType=title&q=%ED%96%89%EB%B3%B5%EB%B0%94%EC%9A%B0%EC%B2%98&act=view&seq=11236557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녀문화 홍보마켓 시범운영 공모 계획 알림’ 2018년 03월 24일.

<http://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0839416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https://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download&seq=109922578&no=1>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보, ‘복권사업이야기’

<https://www.jeu.go.kr/finance/budget/lottery/lottery.htm>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간행물, ‘2019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1월 31일.

<https://www.jeu.go.kr/news/online/ebook.htm> p.g.6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독일해녀문화홍보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 2018년 11월 19일

,<http://www.council.jeu.kr/activity/international.do?field=subject&word=%ED%95%B4%EB%85%80&sdate=&edate=&act=view&seq=26611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녀문화 해외홍보를 위한 글로벌 해녀문화마당 참가 결과보고서’,

2018년 12월 21일,

[http://www.council.jeu.kr/activity/international.do?\\_layout=print&page=2&act=view&seq=267](http://www.council.jeu.kr/activity/international.do?_layout=print&page=2&act=view&seq=267)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게시판, ‘[해녀 진료비 지원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현황 (2018.10월기준)’

<https://www.je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109&act=view&seq=11207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http://www.jeju.go.kr/dojisa/pledges/practice/business.htm>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제주소라, 군장병의 선택으로 새로운 판로 확보’, 2019년 5월 14

일,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act=view&seq=117634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부서안내,

<http://www.jeju.go.kr/group/part11/dept/org.htm#1000014004000>

제주해녀문화연구원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C%82%AC%EB%8B%A8%EB%B2%95%EC%9D%B8-%EC%A0%9C%EC%A3%BC%ED%95%B4%EB%85%80%EB%AC%B8%ED%99%94%EC%97%B0%EA%B5%AC%EC%9B%90-1575862866055204/>

제주해녀박물관 홈페이지 제 2 전시실 ‘사회헌신과 참여’

<http://jmp.jeju.go.kr/haenyeo/exhibit/second/second5.htm>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 관련 정책’

[www.jeju.go.kr/haenyeo/policy.htm?\\_layout=playout&\\_view=print](http://www.jeju.go.kr/haenyeo/policy.htm?_layout=playout&_view=print)

지방 보조금 관련 사항

[http://m.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702001000000&boardId=BBS\\_0000030&dataSid=1307566](http://m.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702001000000&boardId=BBS_0000030&dataSid=1307566)

‘청소년을 위한 진로·여가 해녀문화 체험 캠프’ 및 ‘교강사를 위한 해녀문화 체험캠프’ 일정 및 프로그램,

<https://www.jejuhaenyeo.org/Community/NoticeView.aspx?idx=17&page=1&sg=&sw=>

한국문화재단,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 공모. 2018년 05월 02일’

<https://www.chf.or.kr/c6/sub2.jsp?brdType=R&bbIdx=105747>

한국문화재단 ‘「국가무형문화재 ‘해녀’ 전승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06월 08일.

<https://www.chf.or.kr/c6/sub2.jsp?brdType=R&bbIdx=105896>

1972년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목록

<https://whc.unesco.org/en/statesparties/>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국 목록,

<http://www.unesco.org/eri/la/convention.asp?language=E&KO=17116>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 운영지침 <https://ich.unesco.org/en/directives>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국문 전문

[http://heritage.unesco.or.kr/wp-content/themes/unesco\\_heritage/file/무형문화유산협약\\_한글.pdf](http://heritage.unesco.or.kr/wp-content/themes/unesco_heritage/file/무형문화유산협약_한글.pdf)

2018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https://www.cha.go.kr/download/2018cha\\_plan.pdf](https://www.cha.go.kr/download/2018cha_plan.pdf)

2019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https://www.cha.go.kr/download/2019cha\\_plan.pdf](https://www.cha.go.kr/download/2019cha_plan.pdf)

‘National Geography documentary on Cheju haenyeo’

<https://www.youtube.com/watch?v=LCrYDk5mcN4&t=35s>

OUV, [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wh\\_reg\\_criterion/](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wh_reg_criterion/)

UNESCO (2016), “Decision of the Committee:11.COM 10.B.24”

<https://ich.unesco.org/en/decisions/11.COM/10.B.24>

## 법령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9552#0000>

문화재 보호법,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문화재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관련 자치 법규, <http://www.jeju.go.kr/open/law/current/current.htm>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http://www.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206011002000&boardId=BBS\\_000050&dataSid=1227224](http://www.jje.go.kr/board/view.jje?menuCd=DOM_000000206011002000&boardId=BBS_000050&dataSid=1227224)



## ABSTRACT

# The Inscription of ‘Culture of Jeju Haenyeo’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Influence on Transmission

Cho, So Hyun

Dept. of Cultural Management

Major in UNESCO International Cultur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nscription of ‘Culture of Jeju Haenyeo’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CH), especially on its transmission. To safeguard and to ensure the viability of the IC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is necessary. However, due to aging and th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the number of Jeju Haenyeo is in great decrease every year.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ise proper strategies to foster next generation diver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heritage.

By using secondary data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current policies and business areas regarding the heritage. In addition,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unstructured interview with stakeholder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staffs of fishing village cooperations, and haenyeo community. The study shows that the stat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ritage by enacting a local ordinance, increasing budgets, and promoting new businesses. Meanwhile, the community assessed that the current policies remain in financial support, and are not enough to develop the self-sustaining power of the community itself.

The transmission of the culture of Jeju haenyeo is occurring at the two haenyeo schools located in the Jeju area. However, the duration of the training to become a professional diver is too short to learn all the traditional knowledge that haenyeos have. Moreover, former divers perceive the new comers as a competitor, and are refusing to accept them in their community. In addition, even though the heritage is registered as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2, Haenyeo,' the divers are not eligible for the support given to the holders of the ICH under Korean law. Therefore, the measures taken in the future need to improve the self-sustaining power of the haenyeo community in order for them to transmit the culture by themselves,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new haenyeo can be settled. This can be done by referring to the 'Best Safeguarding Practices' acted by other countries and through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more accurately.

This study definitively answers the question regarding the effect of the UNESCO heritage system on the transmission of 'Culture of Jeju Haenyeo.' Further studies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are needed to establish what happens to an ICH after the inscription. Further comparison of the present condition of other ICH in South Korea is needed. As well as an evaluation of state obligation and implementation of ICH related policies,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Key Words :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 Transmission, Viability